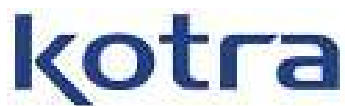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필리핀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마닐라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9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10
- 주요 산업 동향 /11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7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0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1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2
 - 대한수입규제동향 /25
 - 관세제도 /25
 - 주요인증제도 /26
 - 지적재산권 /29
 - 통관운송 /3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5
- 외국기업 투자동향 /38
- 우리기업 투자동향 /4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1
- 진출형태별 절차 /48
- 투자입지여건 /54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9
- 조세제도 /62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3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65
- 물가정보 /71
- 바이어발굴 /72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6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77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8
- 이주정착 가이드 /79
- 출장가이드 /80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99
- 유관기관 웹사이트 /100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공식명칭 :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통칭 Philippines) (타갈로그어 국명: Republika ng Pilipinas) (현지에서는 Filipinas로도 부름)
위 치	동남아시아, 북위 4도23분~21도25분, 동경 116도~127도
면 적	300,800 km ² (한반도 1.3배, 7,107개의 섬으로 구성)
기 후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 건기(11~5월)와 우기(6~10월)로 구분
수 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서울시와 면적 및 인구 유사)
인 구	9,200만 명(2008년 말 추정) (National Capital Region : 1,100만 여명)
주요 도시	Manila(160만 명) (면적: 종로구보다 약간 넓음), Quezon City(220만 명)
민족(인종)	말레이계가 주종 네그리토/인도네시아/중국/메스티조/모로 등 여러 종족간 혼혈
언 어	타갈로그어(공용어), 영어(상용어)
종 교	로만 가톨릭 80.9%, 기독교 4.5%, 이슬람 5%, 기타 등
건국(독립)일	1898. 6. 12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 Ms. Gloria M. Arroyo(14대, 재임) - 취임일: 2000.1.20 - 초임: 2000.1.20~2004.5.29(전임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잔여 임기 승계) - 재임: 2004.6.30~2010.6.29(정식 임기 6년)
입 법 부	양원제(현재 상원 24명, 하원 209명)
정 당	Lakas-CMD, NP, PDP, KAMPI, LP, PMP, NPC, GO

나. 경제 지표(2008년 기준)

G D P	US\$ 1,507억
GDP 성장률	4.6%
물가 상승률	9.3%
실 업 률	6.3%
화폐 단위	페소(PESO)
환 율	US\$ 1 = 48.24(2009년 8월 기준)
외 채	US\$ 544억
연말 외환 보유고	US\$ 338억
산업 구조(GDP 비중)	1차 산업(14%), 2차 산업(32%), 3차 산업(54%)
교역 규모	수출 US\$ 429.7억, 수입 US\$ 482.3억
주요 교역품	- 수출: 반도체 등 전자, 의류, 동/니켈, 코코넛/ 열대과일/참치 등 - 수입: 반도체 등 전자, 기계류, 유류/석유화학제품, 낙농제품 등

자료: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다. 한-필리핀 관계

체결 협정	자원·에너지협력협정('05), I.T.협력협정('05) 등
교역 규모 (2008년 기준)	○ 대 필리핀 수출: US\$ 50억 1,600만 ○ 대 필리핀 수입: US\$ 30억 9,900만
교역 품	○ 우리나라 수출: 전자 부품, 직물, 철강 제품 ○ 우리나라 수입: 전자 부품, 농산물, 비철금속
투자 교류	대필 투자: 61억 2,900만 페소 투자 신고(2007년 누계, BOI)
교민	○ 현지 교민: 86,800명(대사관 2007년 10월 기준) - 단기 체류자 포함 시 약 100,000 명 추정 - 한국 체류 필리핀인: 51,000 명
관광객 (2008년 기준)	필리핀 방문 한국인 관광객: 70만 명(1위) 한국 방문 필리핀 관광객: 연간 5만 명

자료: KOTIS, 외교통상부, 2008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 정치 사회 동향

가. 최근 정치 사회적 동향

아로요 대통령 집권 후 지지도는 높지 않으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사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을 잘 극복해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09년 8월1일 민주화의 상징으로 칭송되던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다음 선거가 관심을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리핀은 부정 부패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2008년 초 현직 대통령의 부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등 4차례에 걸친 연례적인 야당의 탄핵 발의가 지속되기도 했다.

‘09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위축과 취업난 그리고 쌀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악화 등이 주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09년 1월 말 베트남에서 부족한 쌀을 수입하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기부양책을 통해 침체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사회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2010년 대통령 선거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차기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사회적 통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 201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 고조

필리핀 15 대 대통령 선거가 10 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일: 2010.5.10 일) 후보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개도국인 필리핀은 정권의 경제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외국인투자자를 포함, 경제계는 대권후보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5 명 정도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고 변동폭도 커 예측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 대통령 출마예상자

- Manny Villar (1949년, 상원의원)
- Joseph Estrada (1937년, 전 대통령 및 현 상원의원)
- Francis Escudero (1969년, 상원의원)
- Mar Roxas (1957년, 상원의원)
- Noli De Castro (1949년, 현 부통령)

대표적 여론조사기관인 Social Weather Station 조사결과는 부통령 Noli De Castro 가 줄곧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09 년 5 월 이후 Manny Villar(전 상원의장 겸 현 상원의원) 후보에게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Castro 부통령 지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Roxas 상원의원, Estrade 전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1, 2 위간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이고 2~5 위 지지율 차이도 6% 이내이다.

유권자는 4 천 5 백만 여명이며 과거 선거에서는 평균 투표율이 80% 이상이였으며, 40% 이상 득표해야 안정적인 당선권에 든 바 있다.

15 대 선거의 특징으로는 투표율을 높이고 공정선거를 기하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된 자동투표시스템(Automated Election System)을 들 수 있다. 필리핀에는 1 천만 명의 해외취업자(OFW)가 있어 선거의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이중 50 만 여명만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나 이번에는 1 백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후보의 지지율 추이

(단위: %)

	2008 년				2009 년		
	3 월	6 월	9 월	12 월	2 월	5 월	6 월
Manny Villar	17	25	28	27	26	29	33
Joseph Estrade	14	11	13	11	13	13	25
Francis Escudero	19	14	16	19	23	15	20
Mar Roxas	16	13	13	10	15	18	20
Noli De Castro	35	31	29	31	27	21	19

자료: Social Weather Station

다. 국가 조직 및 정치 제도

1) 행정부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가 수반으로 국민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6년 임기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유고 시는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승계하며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하되 보궐선거 시까지만 대행이 인정된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필리핀 태생 시민으로 최소 40세 이상, 선거 직전까지 국내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인정된다.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 시 권한을 승계하며 국민 직접 투표로 선출.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나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부통령의 유고 시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상·하원 의원 과반수의 비준 필요). 피선거권은 대통령과 동일하다.

2) 사법부

대법원(Supreme Court)은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의하며 모든 위헌 심의는 대법관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등법원(Court of Appeals)은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을 수도에 두고 있으며 구속적부심, 영장 발급,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법원은 지역법원(Trial Court) 8개, 수도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17개,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29개,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19개, 시 순회법원(Circuit Trial Court) 10개로 구성된다.

특수 법원으로는 회교재판소(Sharia District Court) 3개, 회교순회재판소(Sharia Circuit Court) 11개, 공무원 범죄재판소(Sandiganbayan) 1개, 국제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1개가 있다.

3) 입법부

필리핀의 의회는 미국을 본 따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 24석, 하원 250석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 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되며 매 3년 마다 12명씩 개선했다.

임기는 6년이며 1차 중임만이 허용된다. 상원은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선전 포고 동의, 조약 및 사면의 동의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원은 소선거구제에 입각하여 1구에서 1인 선출(1선거구는 인구 25만 명 기준)하며 대통령이 직능 대표로 50명까지 임명 가능하다. 임기는 3년이며 2차 중임까지 허용된다.

하원의 권한으로는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예산안, 공공채무 관련 법안(특정 지역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탄핵 소추 제기권이 있다.

4) 정당 제도 및 현황

필리핀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로서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는 103개에 달한다. 주요 정당으로는 다수당이며 여당인 CAPP 및 군소정당 National Peoples' Coalition 등이 있다.

5) 주요 정당

정당명	약명	당수/의장/사무총장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Unity (TEAM Unity)		
Koalisyon ng mga Pulitikong na Maka-Administrasyon	CAPP	Federico Sandoval II & Solomon Chungalao
Kabalikat ng Malayang Pilipino	KAMPI	Luis Villafuerte Sr. (President)
Laban ng Demokratikong Pilipino	LDP	Edgardo Angara (President)
Lakas-Christian Muslim Democrats	Lakas-CMD	Jose De Venecia (President)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NPC	Eduardo Cojuangco, Jr. (Chairman)
Philippine Democratic Socialist Party	PDSP	Norberto B. Gonzalez (Chairman)
Genuine Opposition(GO)		
Aksyon Demokratiko	AD	Sonia Roco (Chairperson)
Kilusang Bagong Lipunan(Marcos Wing)	KBL	Ferdinand Marcos Jr (President)
Liberal Party	LP	Franklin Drilon (President)
Nacionalista Party	NP	Manuel Villar (President)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NPC	Eduardo Cojuangco, Jr. (Chairman)
Partido ng Demokratikong Pilipino-Lakas ng Bayan	PDP-LABAN	Aquilino Pimentel, Jr. (Chairman)
Puwersa ng Masang Pilipino	PMP	Joseph Estrada (Chairman)
United Opposition	UNO	Jejomar Binay {President}
Unaffiliated parties		
Ang Kapatiran	AKP	Nandy Pacheco (Chairman)
Kilusang Bagong Lipunan(Lozano Wing)	KBL	Oliver Lozano
People's Reform Party	PRP	Miriam Defensor-Santiago (Head)

6) 군소 정당

정당명	약명	당수/의장/사무총장
Regional Parties elected through the constituency system		
One Cebu	ONE CEBU	Gwendolyn Garcia
Partido Magdalo	N/A	Juanito Remulla
Sarangani Reconciliation and Reformation Organization	SARRO	Priscilla Chiongbian
Party-list organizations		
Akbayan Citizens' Action Party	Akbayan	Ronaldo Llamas
Alagad	N/A	N/A
Alang sa Kalambu-an ug Kalinaw	Alayon	John Henry Osmeña
Alliance for Barangay Concerns	ABC	James Marty Lim
Alliance of Volunteer Educators	AVE	N/A
Anak Mindanao	AMIN	N/A
Anakpawis	AP	Crispin Beltran
Ang Laban ng Indiginong Filipino	ALIF	Acmad Tomawis
An Waray	N/A	Florencio "Bern" Noel
Association of Philippine Electric Cooperatives	APEC	N/A
Bagong Alyansang Tagapagtaguyod na Adhikaing Sambayanan	BATAS	Daniel Soriano Razon
Bayan Muna	N/A	Satur Ocampo
Buhay Hayaan Yumabong	Buhay	Mike Velarde(founder)
Citizen's Battle Against Corruption	Cibac	Emmanuel Joel Villanueva
Cooperative NATCCO Network Party	Coop NATCCO	Cresente Paez
Gabriela Women's Party	GABRIELA	Liza Maza
Luzon Farmers Party	Butil	N/A
Partido ng Manggagawa	PM	Renato Magtubo
Sandigan ng Lakas at Demokrasya ng Sambayanan	SANLAKAS	N/A
Veterans Freedom Party	VFP	N/A

7) 군대

육군 6만 1,000명, 해군 2만 2,000명, 공군 1만 5,000명 등 총 9만 8,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8) 선거 제도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6년, 상원의원 6년(매 3년마다 절반을 선출), 하원의원 3년, 지방 정부 및 지방의회 의장 등 지방 선출직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기만료에 맞춰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다. 주요 인사

1) 대통령 및 부통령

- 대통령(President) : Gloria Macapagal Arroyo
- 부통령(Vice-president) : Noli L. De Castro

2) 내각(Secretary of Department)

Department	Name
Department of Land Reform	Datu Nasser C. Pangandaman AL HADJ
Department of Agriculture	Arthur C. Yap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Nasser C. Pangandaman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Rolando G. Andaya, Jr
Department of Education	Jesli A. Lapus
Department of Energy	Angelo T. Reyes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Lito Atienza
Department of Finance	Margarito B. Tev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lberto G. Romulo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Ronaldo V. Puno
Department of Health	Francisco T. Duque III
Department of Justice	Raul M. Gonzales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Arturo D. Brion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Gilberto C. Teodoro Jr.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Romulo L. Neri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Ignacio R. Bunye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Manuel M. Bonoan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strella F. Alabastr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Esperanza I. Cabral
Department of Tourism	Joseph H. Durano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Peter Favil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s	Leandro R. Mendoza

3) 기타 주요 인사

- Presidential Spoke Person(대통령궁 대변인)
 - Ignacio R. Bunye
- Press(공보)
 - Ignacio R. Bunye

- Bureau of Immigration & Deportation(이민국)
 - Alipid F. Fernandez, Jr.
- Bureau of Customs(관세청)
 - Napoleon L. Morales
- Bureau of Internal Revenue(국세청)
 - Jose Mario C. Bunag
- GSIS(공무원보험관리공단)
 - Winston F. Garcia
- National Security Adviser(국가안전보장)
 - Norberto Gonzalez
- Phil. Nat'l Police(경찰청)
 - Oscar C. Calderon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국가정보원)
 - Hernando Perez
-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상공회의소)
 - Cora Dela Cruz
- Fed. of Filipino Chines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Francis Chua
- Philippine Ambassador to Korea(주한 필리핀 대사)
 - Susan O. Castrence

라. 외교 관계

기본 정책은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국가 안보의 확보(군사력 약세를 외교력으로 보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 강화,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 대미 관계는 아직도 필리핀 안보의 기반이다.

1992년 11월 말 미군철수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상호 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의 제 1교역 상대국이며 1995년까지 최대 투자국가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을 정도이다.

2002년 민다나오 지역의 회교 반군 문제로 이 지역에서 미군과 합동 군사 작전을 벌였고 미군 주둔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2003년과 2008년에 아로요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였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과시했다.

일본은 제2위 교역 대상국이자 1996년 이래 최대 투자국가로 부상하였다. 일본은 필리핀 이 수령하는 대외 원조(ODA) 총액의 50% 이상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외교적 노력을 투입

해 2차 대전 때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필리핀은 잠재적으로는 일본의 군국화와 경제적 팽창을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는 순조롭다.

아로요 대통령의 방일(2001년 1월 취임 이후 2002년 12월 국민방문 포함 총 4회) 및 고이즈미 총리의 필리핀 방문(2002년 1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일본-필리핀 경제 협력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2008년 10월 필리핀 의회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2009년 초부터 발효되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사회주의 제국과의 선린 정책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정상화되었으나 간헐적으로 표면화되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문제가 필-중 관계 발전의 저해 요소였다.

영유권 문제는 중국의 대국주의, 패권주의적 경향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하여 갈등을 불러왔으나 2004년 9월 아로요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남사군도의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친중국 분위기로 돌아섰다.

2005년 3월에는 베트남, 중국과 3년 간 남사군도 개발 타당성 공동 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서명 당사자: Philippine National Oil Co./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Vietnam Oil and Gas Corp.) 최근에는 중국 민간 및 국영 기업들의 대 필리핀 투자(광산, 건설 프로젝트 등)가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1999년 11월 주룽지 총리 필리핀 방문, 2000년 3월 아로요 부통령 중국 방문, 2000년 5월 에스트라다 대통령 중국 방문, 2002년 9월 이봉 전인대 상무위원장 필리핀 방문 등 고위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였다.

중동 국가들은 필리핀 원유 수입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 60%를 고용하고 있는 관계로 필리핀은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과는 인종 차별 정책이 철폐된 후 관계를 정상화시켰으며 아프리카에서 투쟁하는 소규모 국가들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구 공산권과는 50~60년 대에는 친미 노선을 바탕으로 반공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1972년 루마니아, 유고 등 동구권과 외교 관계를 맺고 1975년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고, 북한과는 2000년에 수교하였다.

우리나라와는 1949년 3월 3일 외교관계 수립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9월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1954년 1월에 주한 공사관 및 주필리핀 공사관을 각각 설치했고, 1958년 2월 양국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09년 5월말 제주도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차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수행하고 방한한 바 있다.

마. 주한 주재국 기관

□ 필리핀대사관

- 대사: Luis Cruz
- 주소: 34-44 Itaewon-1 dong, Yongsan-ku, Seoul

- 전화: 02) 796-7887, 7388
- 팩스: 02) 796-0827
- 근무 시간: 9:00-12:00 & 13:30-16:30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ASEAN FTA 체결

- 2004.11 월 한-ASEAN 정상회의 시 FTA 협상 개시 선언
- 2005. 2 월 협상 개시
- 2005.12 월 한-ASEAN 정상회의,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 2006.2 월 2006 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제 9 차 협상(인도네시아)부터 서비스·투자협정 관련 협상 개시
- 2006.8 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07.1 월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 시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타결 시점을 2007.11 월로 조정
 - 2006 년 말 타결을 목표로 동 분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 진전이 예상보다 더디어 협상 타결 목표 조정
- 2007.10 월 제 20 차 협상(라오스)시 서비스무역협정문 협상을 타결하고 11 월 5 일 전체 아세안 회원국과 양허 협상 완료
 - 제 20 차 협상 시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 시점은 2008 년으로 연장
 - 2006.2 월 제 9 차 협상(인도네시아)~2007.10 월 제 20 차 협상(라오스)까지 총 11 차례 서비스무역협정 협상 진행
- 2007.11 월 한-ASEAN 정상회의,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 2008.1 월 한-필리핀(ASEAN) 상품 FTA 발표
- 2009.5.1 한-필리핀(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 2009.6.2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한-필리핀(ASEAN) FTA 투자협정서명
- 2008년 중 투자 협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협상 완료
-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과, 2020년까지 전 아세안 국가들과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실현

향후 필리핀(ASEAN) 서비스 FTA로 레스토랑, 호텔업, 레저(여행) 사업의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9년 9월말 현재까지 필리핀 호텔 및 여행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고 있다.

나. 반덤핑 규제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사안은 Ceramic Floor and Wall Tiles 1건이 있다. 동 규제는 Safeguard Duty 대상으로 납부금액은 Php2.00 per kg이며 규제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중국, 인도, 말련, UAE,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이다.

2008년 8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철강제품에 대한 Safeguard 조사를 한 바 있다. 동 건도 '09년 7월29일 산업피해 판정을 하면서 한국제품은 시장점유율이 3% 미만이어서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 지표

지 표	2006	2007	2008
실질GDP 성장률(%)	5.4	7.2	4.6
GDP(US\$ 10억)	116.9	135.6	145.9
1인당 GDP(US\$)	1,344.7	1,629.2	1,712.4
수출(US\$ 10억)	46.2	49.4	49.1
수입(US\$ 10억)	53.1	55.9	56.7
연평균 환율(US\$: 페소)	51.31	46.55	44.47
소비자물가(%)	6.2	2.8	9.3
실업률(%)	7.4	7.3	7.7
산 업 구 조			
- 농수산업(%)	14	13	14
- 2 차 산업(%)	32	32	32
- 서비스업(%)	54	55	54
해외근로자 송금액(US\$10억)	12.8	10.30	16.4
외채(US\$ 10억)	53.4	54.9	53.9
대외채무 GDP 비중(%)	45.4	38.1	31.9
외환 보유고(US\$ 10억)	22.96	33.75	36.04

자료: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National Accounts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등

나. '08년 경제 동향

- 필리핀 경제는 '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와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 속에서도 4.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2000 년부터 연평균 4~6%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오다 2007 년에는 31 년만의 최고인 7.2%의 성장세를 구가하기도 했다.
- 고성장 원인은 광산업 25%, 건설업 20%, 농수산 및 임업의 5.1% 성장에 힘입은 바 컸으며 서비스 분야도 8.7% 성장한 가운데 정부부문을 제외하고 교통·통신 8.2%, 무역 9.8%, 금융 12.3%, 부동산 6%, 민간 서비스 8.8%의 성장세를 이어 왔다.
- 필리핀은 천만 명 이상의 해외근로자(OFW)가 매년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한 견실한 소비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음. 이러한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06 년 128 억불, '07 년 146 억불, '08 년 164 억불에 달하며 비중으로 볼 때 GDP 의 11%, 외환보유액(376 억불)의 43%수준에 이르고 있음

- '08 년 수출은 491 억 달러로 '07 년 대비 6% 증가했고, 수입은 567 억 달러로 6.8%의 증가하여 '07 년도의 각각 14.9%, 9.2% 증가에서 다소 둔화되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내국인 투자는 연간 21 억 달러에서 2007 년 23 억 달러로 소폭 증가한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06 년 1 억 달러에서 2007 년 31 억 달러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 환율은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 급증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고 연간 40% 증가, 2007 년 1 월 48.9 페소/달러에서 '08 년 44.47 페소/달러로 급격히 강세 기조로 전환되었다.

다. '09년 경제현황 및 전망

- 필리핀은 2007 년과 2008 년의 성장세를 뒤로 하고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 여파로 2009 년 2~3%대의 낮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08 년 말과 '09 년 초에 제시되었던 주요 예측기관들의 성장전망이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IMF 는 '09 년 5 월 제로성장으로 수정전망하기도 하였다.
- 다만 필리핀 경제의 대외 개방도가 높지 않고 국내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 자본의 비중도 크지 않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기는 하나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수출 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외국인 투자 둔화, 해외근로자의 송금 축소 등이 예상되면서 금융 부문과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이러한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필리핀은 이미 '09 년 1 분기 성장은 2001 년 이래 최저인 0.4%에 그쳤으며 대외교역이 40~50%씩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정부는 3,300 억 페소(70 억불)에 달하는 경기부양 프로그램(ERP)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사회보장 및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재정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정책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디스 : '09.7.23 필리핀 신용등급을 Ba3 로 상향조정)
- 아시아개발은행(IMF)은 '09.7.23 일 “동아시아 경제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 경제도 최악 국면을 탈피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는 수출 수요가 제고되기 힘들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직도 필리핀 경제가 회복국면으로의 이행초기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하방 위험이 다소 강하다고 보면서 내년 이후 성장이 기대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구조 개관

필리핀은 제조업이 취약한 반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1천만 명에 달하는 해외 근로자(OFW)의 송금('08년 164억불)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중심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콜 센터 등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BPO산업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은 농작물의 작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08년 산업생산이 2007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2006년 수준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인 광공업은 광산업이 정체를 보인 반면,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 등이 골고루 성장추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주택 및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산업생산이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은 외국인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전자산업 및 의류산업 등 재수출용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비중심 경제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내수 대상 제조업은 식품 가공업, 음료, 통신업 등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무역 및 금융부문의 호조를 바탕으로 GDP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비중 및 성장률

경상가격 GDP 기준

(단위: 십억 페소)

구분	연도	총계	08 1분기	08 2분기	08 3분기	08 4분기
GNP(국민총생산)	2006	6,533,774	1,499,358	1,585,937	1,590,169	1,858,310
	2007	7,249,323	1,653,574	1,785,015	1,768,034	2,042,700
	2008	8,289,990	1,828,204	2,045,291	2,076,665	2,339,830
GNP 증가율	2006	11.7	13.1	11.8	11.3	10.6
	2007	10.6	10.5	10.9	10.5	10.6
	2008	19.1	10.6	14.6	17.5	14.5
GDP(국내총생산)	2006	6,032,834	1,386,629	1,456,285	1,476,341	1,713,579
	2007	6,648,245	1,524,077	1,618,601	1,613,788	1,891,779
	2008	7,497,535	1,667,968	1,837,877	1,864,897	2,126,793
GDP 증가율	2006	11	12.4	10.8	10.8	10
	2007	10	9.8	10	8.9	11.4
	2008	17	9.4	13.5	15.6	12.4
농림어업	2006	852,799	206,629	183,210	201,671	261,289
	2007	936,416	214,841	195,092	218,475	308,008
	2008	766,054	248,019	254,410	262,159	338,931
- 농업 및 어업	2006	847,977	205,700	181,694	200,058	260,525
	2007	932,282	214,026	193,772	217,170	307,314
	2008	1,099,152	247,167	253,103	260,724	338,158
- 임업	2006	4,821	928	1,516	1,613	764
	2007	4,132	814	1,320	1,305	693
	2008	4,358	853	1,307	1,435	763
광공업	2006	1,913,031	434,088	457,548	475,711	545,684
	2007	2,107,288	484,440	525,461	512,244	585,143
	2008	2,371,165	511,928	589,397	604,501	665,339
- 광산업	2006	75,556	16,975	21,431	20,376	16,774
	2007	108,173	25,165	39,920	24,153	18,935
	2008	108,984	25,486	34,917	27,423	21,158

- 제조업	2006	1,381,172	311,221	308,494	343,831	417,626
	2007	1,463,752	334,747	324,966	360,978	443,061
	2008	1,671,355	359,307	379,239	429,033	503,776
- 건설업	2006	240,240	54,286	66,958	58,402	60,594
	2007	304,592	68,223	94,995	70,628	70,746
	2008	352,822	68,803	106,309	91,824	85,886
- 전기가스수도	2006	216,062	51,607	60,664	53,101	50,690
	2007	230,770	56,305	65,580	56,484	52,401
	2008	238,004	58,333	68,932	56,220	54,519
서비스업	2006	3,267,005	745,912	815,528	798,959	906,606
	2007	3,604,543	824,796	898,048	883,070	998,629
	2008	4,022,850	908,021	994,070	998,237	1,122,522
- 운송통신창고	2006	446,224	104,994	117,059	104,329	119,842
	2007	478,390	113,433	126,388	109,666	128,903
	2008	506,551	121,369	132,920	117,211	135,051
- 무역	2006	877,544	186,864	210,077	216,548	264,055
	2007	981,102	207,861	233,358	243,371	296,512
	2008	1,124,272	232,280	269,730	282,787	339,475
- 금융	2006	311,443	73,455	79,329	75,572	83,087
	2007	361,972	87,907	92,692	86,328	95,045
	2008	414,483	104,097	102,743	98,587	109,056
- 부동산	2006	350,676	84,714	87,094	89,582	89,286
	2007	373,972	90,536	92,715	95,971	94,750
	2008	416,764	99,228	103,640	108,010	105,886
- 민간서비스	2006	830,152	192,859	204,453	206,668	226,172
	2007	936,912	219,478	231,682	234,004	251,748
	2008	1,045,404	241,242	257,740	264,263	282,159
- 공공서비스	2006	450,964	103,026	117,515	106,259	124,164
	2007	472,196	105,581	121,213	113,731	131,671
	2008	515,376	109,804	127,298	127,379	150,895

자료: National Accounts of the Philippine 2008

‘09년 2분기 GDP 1.5% 증가 -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영향

- 필리핀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09년 2분기 GDP가 1.5% 증가하였다. 이는 ‘08년 2분기의 4.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기침체 우려를 딛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이러한 양호한 성장은 활기를 되찾은 건설경기 및 광업생산의 증가 그리고 정부지원에 힘입은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의 침체 우려를 딛고 성장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그러나 성장과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제조업 생산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공식 실업률이 7.5%에 이르고 있고 취약한 제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구축이 긴요하고 경제성장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요측면에서 경제성장은 주로 건설, 정부지출 및 가계지출의 증가에 기인했으며 1분기의 보수적인 수요유지보다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측면에서 서비스업은 3.1%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2분기 연속 하강 추세를 이어갔다.
-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해외근로자의 송금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08년 2분기 15.8% 증가에서 ‘09년 2분기에는 29.7%로 대폭 증가하여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송금감소와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나. 주요 부문별 동향('09년 2분기 성장)

□ 농림어업 동향

GDP의 16.5%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어업은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 부문은 '08년 2분기 4.9% 증가한 바 있으나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속도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0.3% 성장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으며 Fishery(1.6%), Poultry(0.4%), Livestock(0.3%) 분야의 생산증가가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Fishery, Banana, Poultry, Livestock 및 Palay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이며 이와 반대로 가장 정체된 부문은 Sugarcane, Forestry 및 기타 농산물 생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Poultry와 Livestock은 '08년 2분기의 10.5% 성장에서 '09년 2분기 1.9% 성장에 그쳤는데 필리핀 중부지역인 Visayas 및 남부지역인 Mindanao에서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북부지역인 Luzon에서 계속된 강우로 인한 생산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옥수수 생산은 '08년 2분기의 24.0% 증가에서 '09년 2분기 0.5%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필리핀 북부 Cagayan지역에서의 생산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옥수수 대신 palay와 cassava로 작물을 대체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남부지역인 Mindanao 북부에서도 옥수수 대신 파인애플로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부 Mindanao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수확을 3분기로 미룬 것도 영향을 미친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Coconut은 '08년 2분기의 6.6% 생산증가에서 '09년 2분기 1.6%증가에 그쳤는데 지속되고 있는 Mindanao 지역에서의 코코넛 나무 제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Banana는 '08년 2분기 21.1%에서 '09년 2분기 4.8% 증가로 생산이 둔화되었는데 Cagayan, Bicol, Central Visayas 및 Soccsksargen 지역의 큰 나무 삭제와 Davao 지역에서 이미 수확된 재배면적의 확대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ugarcane 생산은 '08년 2분기의 110.8% 증가에서 '09년 2분기 52.5% 감소로 사정이 크게 달라졌는 바 이러한 급격한 생산감소는 Visayas 지역에서 초래된 비료가격의 상승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제 때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농작물의 생산은 '08년 2분기의 5.4%감소에서 '09년 2분기에는 6.0%로 생산부진이 더욱 심화되었다.

Ilocos, Cagayan Valley 및 Central Luzon 지역에서의 망고(Mango)생산은 기후여건이 좋지 않았으며 태풍의 영향으로 망고 나무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며 Abaca 생산도 가격이 낮고 수요도 줄어든데다 병충해 영향으로 작황도 좋지 않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Livestock 생산은 돼지와 소의 사육 증가로 '08년 3.1% 감소에서 '09년 2분기에는 2.6% 증가로 돌아섰으며 이와는 반대로 수요부족에 직면한 Goat 사육은 줄어들었다. Poultry 생산은 '08년 2분기의 7.6%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5% 증가하였다.

상업용 어업생산은 '08년 2분기의 2.0%에서 5.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조림 공장에서의 수요 및 건어물 소매판매 증가에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수산양식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양식 마리 수와 생존율의 증가 그리고 양식기술의 발전 및 양질의 먹이 제공 등에 기인하고 있다.

해초류 생산도 증가하고 있는데 필리핀 현지에서 생산되는 해초류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고 양식장의 운영기술 향상과 조기 채취 그리고 높은 수요에 힘입은 바가 크다.

포장용 목재생산은 '08년 2분기의 3.8%보다 더욱 감소해 '09년 2분기에는 8.7%로 대폭 감소하였다.

농림어업 부문별 성장률('09년 2분기)

INDUSTRY/INDUSTRY GROUP	08 2분기	09 2분기	증감율(%)
1. AGRICULTURE INDUSTRY	253,149	244,277	-3.5
a. AGRICULTURE	209,288	198,296	-5.3
Palay	48,379	44,422	-8.2
Corn	12,313	11,968	-2.8
Coconut including copra	15,740	11,758	-25.3
Sugarcane	4,786	2,050	-57.2
Banana	16,673	18,893	13.3
Other crops	47,089	44,169	-6.2
Livestock	33,828	33,249	-1.7
Poultry	16,183	17,967	11
Agricultural activities & services	14,296	13,819	-3.3
b. FISHERY	43,861	45,981	4.8
2. FORESTRY	1,307	1,199	-8.2
총계	254,456	245,476	-3.5

□ 제조업 동향

제조업 분야의 성장은 08년 4.0% 증가에서 0.3%로 생산이 마이너스로 대폭 감소하였다. GDP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7.2%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광업 분야의 두 자리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각 부문의 성장둔화로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야기하였다. 광산 및 채굴업은 '08년 13.7% 감소에서 '09년 21.4% 증가세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기여가 가장 큰 분야는 Crude Oil, Natural Gas & Condensate로 '08년 11.8% 감소에서 '09년 2분기에는 62.8% 증가로 돌아섰다.

아울러 15.4% 감소에서 12.6% 증가로 돌아선 기타 비철금속 분야도 성장에 한 몫을 하였으며 Copper Mining도 0.9%에서 111.2%로 3자리 수의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기타 비철금속도 86.7% 감소에서 271.8%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에 성장이 둔화된 부문들도 있으며 여기에는 8.6% 감소에서 8.8% 감소세로 돌아선 Gold Mining과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19.8% 감소에서 12.6%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Nickel Mining, 55.7% 감소에서 23.3% 감소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Chromium Mining 등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부문 중의 하나로 제조업은 '08년 6.1% 증가에서 '09년 2분기에는 7.2% 감소로 급반전하여 필리핀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장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것은 원유생산이며 (5.7% 감소에서 15.8% 감소) 그 다음으로 식품제조(13.2% 증가에서 2.2% 감소)이며 신발 및 의류(18.1% 증가에서 24.3% 감소), 금속(9.6% 증가에서 19.8% 감소) 기초소재(16.3% 증가에서 17.0%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ransport Equipment(7.6% 감소에서 6.7% 증가)와 비금속 광물생산(9.8% 감소에서 1.1% 증가)과 기타 제조업(6.6% 감소에서 0.5% 증가) 등은 생산이 증가한 부문이다.

건설업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필리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09년 2분기에 이미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시현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가장 큰 수혜 부문으로 '08년 2분기의 2.3% 증가에서 '09년 2분기에는 무려 16.9% 증가로 급속한 성장추세를 그리고 있다.

공공부문의 건설수주 증가에 힘입어 '08년 2분기 5.6% 감소에서 '09년 2분기 29.9% 증가로 돌아섰으며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Economic Resiliency Plan (ERP)에 힘입은 바 크다. 다만 민간 건설부문은 8.6%에서 6.5% 감소로 위축된 점이 특이하다.

전력 및 수도사업은 '08년 2분기 6.6% 증가에서 '09년 2분기 2.9%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다만 상업용 전력사용이 6.9% 감소에서 2.7%로, 수도물 사용은 2.7%에서 5.7%로 증가하였다.

제조업동향

INDUSTRY/INDUSTRY GROUP	08 2분기	09 2분기	증감율(%)
INDUSTRY SECTOR	584,200	570,667	-2.3
- Mining & Quarrying	34,384	27,264	-20.7
- Manufacturing	376,711	338,736	-10.1
- Construction	104,802	126,626	20.8
- Elect, Gas and Water	68,303	78,041	14.3

□ 서비스업 동향

'09년 2분기 필리핀의 GDP 성장은 사실상 서비스업이 주도했다. GDP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부문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송, 통신 및 창고(TCS) 부문은 기존의 하강 추세가 완화되었으며 성장도 '08년 2분기의 2.6%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경제 전반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1.7% 증가로 완만한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1993년 1분기 3.9% 성장 이후 연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TCS 부문의 완만한 성장으로 지난해 0.2% 감소에서 5.5% 성장으로 추세를 돌려놓았다. 주요 부문들도 성장둔화 우려를 잠재우고 있을 정도로 지속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매판매는 '08년 2분기 1.9% 증가에서 '09년 2분기 8.8%로 증가한 반면 도매판매는 15.1% 감소하여 크게 후퇴한 것은 물론 1991년 3분기 5.7%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석유제품의 거래감소가 자리잡고 있다.

저축예금의 증가와 해외차입의 증가로 은행들은 5.3%의 성장세를 구가하였으며 '08년 2분기의 4.2% 보다도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러한 은행들의 실적호조는 금융업 전체의 성장을 '08년 2분기의 1.0%에서 '09년 2분기에는 1.8% 성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보험 및 비은행 부문의 성장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08년 2분기와 '09년 2분기 각각 6.7% 감소에서 2.6% 감소, 5.1% 감소에서 12.1% 감소로 전환되었다.

주거용 부동산 등록은 '08년 2분기의 3.1% 증가에서 '09년 2분기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기 성장은 7.5%에서 3.4%로 둔화되었고 부동산 전체로는 22.7%에서 4.1%로 둔화되었다.

개인서비스 분야는 세탁, 스파, 이발소 및 미용실 및 기타 관련서비스가 포함되는데 민간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8년 2분기 4.9%에서 '09년 2분기에는 5.3% 증가로 성장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민간서비스는 6.0%에서 2.8%로 성장이 둔화되었기는 하지만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성장에 기여한 부문은 Recreational Services를 들 수 있으며 방송(6.7%), 의료 서비스(3.0%),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오염방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 기타 서비스(1.9%), 호텔 및 레스토랑(1.9%), BPO 등이 포함된 비즈니스 서비스(0.7%) 등인 반면 교육서비스(1.6% 감소)는 감소했다.

공공부문 서비스는 7.7% 성장했으며 이는 '08년 7월 시행된 임금인상과 부가서비스의 보충에 기인한 바 크다.

서비스업 동향

INDUSTRY/INDUSTRY GROUP	08 2분기	09 2분기	증감률(%)
SERVICE SECTOR	995,260	1,053,744	5.9
Transport., Comm., Stor.	132,920	135,266	1.8
Trade	266,443	277,416	4.1
Finance	102,743	107,907	5
O. Dwellings & R. Estate	103,565	109,968	6.2
Private Services	257,740	274,261	6.4
Government Services	131,850	148,926	13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한-ASEAN FTA 체결

2006년 5월 16일 한-아세안 FTA 기본 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하였으며 2007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에 서명, 2009년 5월 발효되었다.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 서명되었다.

필리핀은 2007년 11월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로 상품 FTA가 발효되었다.

한-ASEAN FTA 협상 경위

- 2004.11 월 한-ASEAN 정상회의 시 FTA 협상 개시 선언
- 2005. 2 월 협상 개시
- 2005.12 월 한-ASEAN 정상회의 시 한-아세안 FTA 기본 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 2006.2 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제 9 차 협상(인도네시아)부터 서비스투자 협정 관련 협상 개시
- 2006.8 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 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07.1 월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 시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의 타결 시점을 2007.11 월로 조정
 - 2006 년 말 타결을 목표로 동 분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 진전이 예상보다 더디어 협상타결 목표 조정
- 2007.10 월 제 20 차 협상(라오스)시 서비스무역협정문 협상을 타결하고 11.5 일 전체 아세안 회원국과 양허 협상 완료
 - 제 20 차 협상 시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 시점은 2008 년으로 연장
 - 2006.2 월 제 9 차 협상(인도네시아) ~ 2007.10 월 제 20 차 협상(라오스)까지 총 11 차례 서비스무역협정 협상 진행
- 2007.11 월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 2008년 1월 1일 상품 FTA 발효
- 2009년 6월 2일 투자 FTA 서명
-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과, 2020년까지 전 아세안 국가들과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실현
 - 향후 광산 개발 서비스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풍부한 필리핀의 광물 자원(금속성 광물 자원 총 8억 5천 톤으로 추정) 개발을 위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레스토랑, 호텔업, 레저(여행) 사업의 개방으로 필리핀 관광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에는 호텔업 및 여행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었으나 한-FTA 승인 후에는 100%로, 외국인 순수 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이며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로서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 시장(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국과 ASEAN 간의 상품 협상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보다 3년 늦게 한-아세안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일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완료 시기에 있어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ASEAN 시장에서 한국이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ASEAN과의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한국의 향후 ASEAN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07.4.7)에 따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아세안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와 1인당 후생 수준은 각각 0.63%와 0.65% 증가하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철강, 기타 제조업 부문의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무역 협정문은 모든 품목을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일반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품목군 분류는 각 당사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리핀의 경우 일반 품목으로는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철강 등이 있으며 민감 품목으로는 오리, 고등어, 야자수, 소시지, 신발류 등이 있다. 초민감 품목은 닭, 돼지, 양배추, 마늘, 플라스틱제 의류 등이 있으며, 버, 사탕수수당, 시동 전동기, 와이어링 세트 등은 양허 제외 품목으로 분류된다.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대한 조항은 상품무역협정 제3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개의 부속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 필리핀-일본 FTA 체결

지난 2003 년부터 시작된 일본-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 년간의 진통 끝에 제 6 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개최 하루 전인 9 월 9 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일본-필리핀 경제협력 협정(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PEPA)'의 표제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체결 이후 2 년간 협상을 거듭해 오다 2008 년 10 월 10 일 필리핀 상원의 승인으로 12 월에 발효되었다.

JPEPA 는 필리핀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철강(Iron and Steel),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 의류, 과일(포도, 배)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향후 10 년 내에 삭감 또는 폐지해야 하며, 필리핀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일본 투자자에게 비-FTA 국과 차별화되는 혜택(Incentive)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일본산 산업용품(Industrial Goods)의 경우 향후 10 년 내에 현행 수입 관세의 90%, 철강의 경우 현행 수입 관세의 최소 60%를 삭감해야 하며, 자동차(배기량 3,000cc 또는 그 이하)도 현행 30%인 수입 관세율을 △금년 29%, △2007 년 26%, △2008 년 23%, △2009 년 20%, △2010 년 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일본 정부도 필리핀 간호사 및 간호간병인의 일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축산물(협정 품목), 가공 식품 및 기타 부산물 대한 관세를 최대 10 년 내에 단계적으로 삭감·폐지해야 하고 동 상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Quota)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 간호사 및 간호간병인과 같은 인력파견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본이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인력 수급량의 가이드라인도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인력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산 농산물의 경우, 파인애플(900g 이하)은 5 년 이내에 무관세로 연간 800 톤의 수입 할당량(1,000 톤/년→ 1,800 톤/년)을 늘려야 하며, 건조 파인애플은 10 년 이내 수입 관세 철폐, 파인애플 주스는 수입 관세 적용 비율의 10%를 5 년 내에 줄여야 한다. 또한 바나나의 경우 하절기 수입 시 수입관세 2% 포인트 삭감(10%→8%), 동절기 수입 시 10% 포인트 삭감(28%→18%)된 수입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닭과 같은 축산물에도 2011 년에 수입 할당량을 3,000 톤에서 7,000 톤으로 (수입 관세 8.5% 적용) 늘려야 하며, 필리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도 조기 철폐(새우) 또는 단계적 철폐(게)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부산물인 당밀(Molasses)에 대해 △2009 년 2,000 톤, △2010 년 3,000 톤으로 수입 할당량을 늘려야 하고 1kg 당 15.3 엔으로 부과 되고 있는 수입 관세도 50%를 삭감해야 하며, 흑설탕(Muscovado Sugar)에 대해서도 △2009 년 300 톤, △2010 년 400 톤으로 수입 할당량을 늘리고 수입 관세도 1kg 당 35.3 엔에서 17.65/kg 으로 50%로 삭감해야 한다. (단, 원료 및 정제 설탕은 2010 년 재협상 품목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08년도 우리나라 제품의 필리핀 수출이 전년대비 13.5%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체 수출의 30%를 전자부품이 21%의 증가세를 보여 '07년의 감소추세에서 반전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쳐 전체적인 수출증가율에는 크게 뒤지고 있다.

2008년에는 필리핀 경제가 '07년도의 7%대 고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기대에 못 미쳤으며 특히 2분기부터 본격화된 고유가와 쌀 등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필리핀 경제사정이 악화돼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태국으로부터의 2008년도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보다 훨씬 큰 27.1%에 달했다. 전자부품, 비철금속 제품 및 농산물 등을 비롯, 다양한 제품이 수입됐으며 증가율면에서는 광물성연료를 비롯, 비철금속제품, 철강제품, 금속광물, 임산물, 정밀화학 제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들 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로서 글로벌 소싱의 의미가 커서 단순한 소비제품의 수입증가와 구분되고 있다.

2008년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교역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FTA 영향과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진출이 확대에 기인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위축에 따른 성장부진으로 우리나라의 필리핀 수출은 낙관적이지 못하나 내수위주의 산업기반과 연간 164억불에 달하는 해외근로자의 송금,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을 바탕으로 3% 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수출증가로 연계노력이 배가된다면 급격한 수출감소를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수빅만에 세계 4대 조선소를 건립 중인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의 원자재 수요 증가와 원화가치 하락에 힘입은 자동차 등 필리핀 시장에서 한국상품이 선전할 경우 전반적인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의 경우에도 '09년에는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로 감소되거나 둔화될 전망이나 전반적인 교역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수출 및 수입 모두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은 최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학연수·관광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점차 밀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량은 상당 기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필리핀의 대한 교역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01월~07월)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가율
수출	3,931	4,420	5,016	2,401	-20.9
수입	2,187	2,438	3,099	1,434	-22.6
무역수지	1,744	1,982	1,917	968	

2008년 기준, 필리핀의 대한 수출은 5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1~7월에는 수출 24억 달러, 수입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하였다.

필리핀의 품목별 대한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2단위)	품목명	2008		2009(01월~0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016	13.5	2,401	-20.9
1	83	전자부품	1,389	2.1	631	-24.0
2	13	광물성연료	899	30.6	371	-22.8
3	61	철강제품	548	85.3	204	-40.0
4	74	수송기계	283	36.8	201	18.0
5	22	정밀화학제품	173	69.2	130	31.4
6	21	석유화학제품	248	10.1	111	-32.2
7	44	섬유제품	29	-14.3	98	452.5
8	81	산업용전자제품	226	-15.5	86	-40.2
9	62	비철금속제품	223	-8.5	84	-40.6
10	43	직물	140	-27.7	68	-20.4
11	71	기초산업기계	99	3.2	47	-24.2
12	31	플라스틱제품	69	15.0	33	-25.6
13	84	중전(heavy electric) 기기	63	30.1	30	-16.3
14	01	농산물	36	-3.0	30	39.5
15	72	산업기계	77	-14.9	26	-44.3
16	79	기타기계류	53	-37.4	26	-22.6
17	82	가정용전자제품	47	24.4	25	5.6
18	75	기계요소공구및금형	43	1.3	25	-7.3
19	23	비료	52	51.8	25	-47.6
20	11	금속광물	52	30.2	19	-43.2

자료: KOTIS 무역통계

- 품목별 동향을 살펴보면,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부품, 비철금속 제품, 농산물, 산업용 전자제품 등이며 광물성연료 및 금속광물,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의 급증 속에 품목별로는 전자부품이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 수입 품목은 전자부품,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수송기계 등의 비중이 높고,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부품의 경우, 현지 가공을 위한 원자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 제품의 수입 급증은 현지에 진출한 한진 중공업의 선박 제조용 원자재 수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 시장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송 기계의 수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품목별 대한 수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2단위)	품목명	2008		2009(01월~0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099	27.1	1,434	-22.5
1	83	전자부품	1,182	5.8	611	-7.8
2	62	비철금속제품	739	117.0	214	-55.4
3	01	농산물	375	14.4	213	-7.1
4	13	광물성연료	105	95,277.8	105	216.1
5	81	산업용전자제품	202	-9.1	92	-28.3
6	84	중전(heavy electric) 기기	99	-30.0	37	-43.4
7	11	금속광물	49	72.7	30	-33.3
8	61	철강제품	91	107.5	18	-66.9
9	82	가정용전자제품	33	-25.3	16	-33.6
10	44	석유제품	26	8.4	15	-5.0
11	03	임산물	35	117.8	14	-19.7
12	22	정밀화학제품	34	45.5	12	-44.8
13	74	수송기계	11	-4.2	11	62.3
14	04	수산물	19	-11.8	8	-26.7
15	12	비금속광물	11	-2.3	5	-5.0
16	21	석유화학제품	24	74.3	5	-68.6
17	24	요업제품	8	35.9	4	-15.6
18	31	플라스틱제품	12	28.5	3	-56.5
19	25	제지원료및종이제품	6	-27.3	3	-7.2
20	72	산업기계	3	-1.2	3	28.2

자료: KOTIS 무역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필리핀 보호무역조치 동향

- 필리핀은 가장 취약한 부문인 농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주의 경향을 띠지 않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음

-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 6개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 (MAV) 정책에 의거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옥수수, 설탕, 돼지고기, 가금류, 커피, 커피추출물 등이며 관세율도 20-25%에 이르고 있음

나. 수입규제 내용

- 근거법령 : Anti-Dumping Law/Safeguards Law (RA 8800)
- 규제기관 : 무역산업부(DTI) 및 관세위원회(TC)
- 규제품목 : Steel Angle Bar/ Float Glass/ Ceramic Tiles

규제품목	대상국가	규제내용
Clear Float Glass	인도네시아	Anti-Dumping Duty US\$ 11.42 – 143.05 per metric ton
Steel Angle Bar	중국,일본,대만,캐나다,러시아,우크라이나	Safeguard Duty Php7,700.00 per metric ton
Ceramic Floor and Wall Tiles	브라질,중국,한국,인도,말련, UAE, 대만,태국,베트남	Safeguard Duty Php2.00 per kg
Figured Glass	중국,인니,일본,대만,태국	Safeguard Duty Php2,274 per metric ton
Glass Mirrors (Copper-based)	중국,일본,인도,인니,대만	Safeguard Duty Php4,384.25 per metric ton

다. 수입 관리 품목(Import Regulated Commodities) (범례) 품목 수입승인기관

아래 자료는 중앙은행(BSP)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수입을 할 경우 사전에 Bureau of Import Service에 사전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한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 Acetic anhydride ... DDB
- 쌀, 옥수수 ... NFA
- Sodium Cyanide ... BFAD
- Chlorofluorocarbon ... BFAD
- Penicillin, derivatives ... BFAD
- 정제석유제품 ... ERB
 - Aviation Gasoline ; Motor Spirit(Gasoline) ; Petroleum Naphtha ; Kerosene(including Kerosene type jet fuel) ; Diesel Oil ; Other Gas Oils ; Fuel Oils for use in the generation of electric power ; Bunker Oil ; Slop Fuel Oils ; Other Fuel Oils ; Lubricating Oils and base stock, Heavy Oil Preparations ; LPG
- 석탄 ... ERB
- 컬러복사기 ... NBI & Cash Dept. of Central Bank
- 폭발용 화공약품 ... PNP-FEO
 - Sodium Nitrate ; Nitric Acid ; Sodium Chlorate ; Potassium Chlorate ; Sodium Perchlorate, Ammonium Perchlorate and Potassium Perchlorate ; Potassium Nitrate ; Lead(II) Nitrate, Copper(II) Nitrate, Barium Nitrate, Calcium Nitrate, Strontium Nitrate and Cupric Nitrate ; Ammonium Nitrate ; Nitrocellulose and Dinitrocellulose
- 양파, 마늘, 감자, 양배추(종자용) ... Bureau of Plant Industry
- 농약 ... Fertilizer & Pesticide Authority

- Agricultural Insecticides ; Fumigate ; Other Insect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 for sale by retail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Fung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 for retail sale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Weed Killers (Herb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 for sale by retail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Rat Positions ; Anti-Sprouting Products ; Plant-Growth Regulators ; Other Products
- 중고 자동차 부품 ... BIS
- 중고 타이어 ... DTI
- 달러화로 결제하지 않는 중고차 수입 ... BIS
- 정부기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연간 2백만 페소 초과시) ... Nat'l Computer Center
- 방사능물질 ... PNRI
- 필리핀 통화의 합법적 입찰 ... BSP
- 금화, 구리, 니켈 등 각종 주화용 빈 동전, 지폐 ... BSP
-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농산물 ... NFA, BAI
 - 옥수수, 가금류/돈육 및 그 제품, 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및 그 제품
- 휴대전화 단말기, 전화수신기 등 모든 통신기기 ... NTC
- 중고컴퓨터 ... DENR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용 프레온 가스 ... DENR
- 신선 과일 및 채소류 ... BPI
- 신선 및 냉동 어류 ... BFAR
- 동물용 사료 ... BAI
- 가공 식품류 및 약품 ... BFAD
- PVC resin ... BOI
- Cigarettes & other Tobacco Products ... NTA, DENR, BIR
- 화장품 ... BFAD
- 수의약품 ... BFAD, BAI
- 보트 및 각종 선박 ... MARINA
- 각종 항공기 ... ATO, CAB
- 컴퓨터(모뎀 장착된 것) ... NTC

□ 승인 기관 약칭 풀이

- ATO : Air Transportation Office
- BAI : Bureau of Plant Industry
- BFAD : Bureau of Food and Drugs
- BIR : Bureau of Internal Revenue
- BOI : Board of Investment
- BPI : Bureau of Plant Industry
- BRAR : 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 CAB : Civil Aeronautics Board
- DDB : Dangerous Drugs Board
- DENR : Dept. of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 ERB : Energy Regulatory Board
- MARINA : Maritime Industry Authority
- NBI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 NTA : National Tobacco Authority
- NTC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PNP-FEO : PNP 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
- PNRI : Phil. Nuclear Research Institute

라. 수입 금지 품목(Prohibited Commodities)

-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등 농산품(종자용 제외)
- 포르노 제품 / 재료
- 중고 의류 및 냄마
- 장난감 총
- 폭약 및 총기, 무기류 및 부품(특별히 승인된 건 제외)
- 내란 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신체에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등
-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등
- 도박 용구, 카드, 기구 등
- 복권, 경마권 등
- 귀금속으로 제조된 예술품
- 불량 의약품 및 식품
- 마리화나 및 기타 마약 등
- 기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

4. 대한수입규제 동향

수입규제제도” 항목에 따른 일반적 수입 규제 이외에 한국산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수입규제는 없다.

5. 관세제도

가. 상품분류

- 상품 분류는 HS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는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HS코드는 물론 PSCC 코드로도 분류하여 집계되고 발표된다.

나. 관세율 및 변동과정

- 관세율은 에스트라다(Estrada) 정부에서 2001년의 14단계에서 2004년까지 4단계로 축소(2004년 최고 관세율 5%)시킬 계획(Executive Order 334)을 발표하였으나 2002년 4월 아로요(Arroyo) 대통령은 이에 대한 수정을 한 데 이어 2004년 9단계(2004년 최고 관세율 50%)로 변경하였다(Executive Order 94)
- 필리핀은 2003년 중반 이후 수입관세 인상을 통한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회담 실패를 계기로 '03년 11월부터 5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입관세 인상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 2002년까지는 관세율 표에 3개년 분을 포함시켰었으나 2003년에는 당해 연도 관세율만 명시하여 발간함으로써 차후 관세율의 조정 여지를 남기기도 했으며 2004년도 관세율 표에는 2005년까지 2년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아세안 관세율(CEPT Rates)과 MFN 관세율이 나란히 표시되고 있다.

- 2006년 5월 아로요(Arryo) 대통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 및 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최소 0%에서 최대 3%까지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 명령 527호(EO No. 527)를 발표하기도 했다.
- 2008년 1월부터 한-아세안 상품 FTA 발효에 따라 일부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었고 향후 점진적으로 모든 품목에 걸친 관세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6. 주요인증제도

가. 표준화 및 국제 인증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관련 업종의 제품과 관련된 정부 유관 기관 해당 부서 및 국제공인기관(ISO, IEC)에서 전적으로 관여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표준화는 필리핀 무역산업부의 BPS(Bureau of Philippine Standard)에서 담당하며 동 부서에서 제공하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품질 마크를, 국제인증은 ISO와 IEC 등 국제기구의 기준 및 제품 사용 목적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표준화는 전기·전자 분야, 기계, 화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자의 제품의 질을 판단하기 보다는 현지 시장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와 자국민 경제 및 건강에 미칠 영향력 등을 판단한다.

기계 분야 및 섬유 관련 분야의 경우 필리핀 표준 규격 조건(BPS, Bureau Philippine Standard)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전기/전자, 석유/화학공업 및 건축/건설의 경우는 표준 규격 조건과 함께, 제품별 사용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된 동종 민간단체의 규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ISO 9001 및 IEC 인증과 조건에 맞는 규격을 필요로 한다.

현지에서 가장 인지도 및 효용성이 높은 국제 인증으로는 ISO 9001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각의 분야에 필요한 국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ISO에서 발급되는 인증서 중 최근 관심 사항인 것은 ISO 14064(지구 온난화 관련), ISO 26000(치안 관련), ISO 9000(건강 관련) 등이 있다.

1) 기본 규정

필리핀 행정부에서 발표한 필리핀 규격(PS: Philippine Standard) 조항에 의거, 수입 규제품목(Regulated products)을 수입하려면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마크를, 현지 생산품은 필리핀 표준 규격(Philippine National Standard ; PNS) 또는 국제 표준인증 (품목마다 상이)을 득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

2) ICC 인증 필요 서류

- 신청서 원본과 공증된 3장의 사본
- 선하증권
- 제품 리스트
- 송장(INVOICE)

- DTI (Dept of Trade and Industry)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수입자의 등록 서류
- 표준규격인증서(ISO등 국제 표준)

3) ICC 인증 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요건

- 필리핀 표준청(BPS)의 제품 테스트는 없었으나, ISO9001:2000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필리핀 표준청(BPS)의 제품 테스트와 ISO9001:2000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수입 허가 제도의 수입 관리 대상 제외 품목으로, 필리핀 표준청(BPS)의 제품 테스트와 ISO9001:2000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
- 필리핀 표준 규격과 안전 규격 마크(Safety Certification)가 있는 경우

나. 의약품 분야

주재국에 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필리핀 식약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등록 신청의 요구 사항

- BD #1 s. 2002에 규정된 등록 지원서 작성
- 약품 등록 서식 첨부/참조(개정판)
- 모라토리엄 제어 대상 증명서
- 과거 RSN에 해당되어 승인 불가 통보한 서신 사본(재신청의 경우)
- 제조업자, 무역업자, 분배자 간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 사본
- 수입, 수출업자, 도매업자
- A.O. 54 규정에 명시된 제품 등록 증명서 원본 제출
- 제품 출처가 명기된 제조업자, 무역업자, 분배자, 수입업자의 LTO 사본
- 추가 서류: 금지/통제 약품의 경우(DDB에서 발행된 허가증)
- 기준 복용량과 제조법
- 약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technical 내역서
- 주요 원재료에 대한 분석표
- 공급자(제조업자)에 의한 원재료 분석
- 제조업체의 완제품 분석
- 완제품에 대한 technical data(기술 검사서)
- 완제품에 대한 분석표(1회분의 견본 제출)
- 제조 공정 내역서, 생산 장비, 추출 견본, 품질 검사 및 포장 공정 설명 내역서
- 효능을 분석/검사한 데이터 자료 e.g. 색층 분석(비공식적인 포물러라면 분석/테스트 결과 첨부)
- 안정성 시험(Stability Studies)
- Accelerated (최초 신청)-1 batch at 3 elevated temperature
- Long Term(갱신)-3 batches
- In-Use(개조된 제품)
- 1 batch at 30 oC and 2 oC -8 oC
- 3 batches at 30 oC and 2 oC -8 oC
- 시중에 유통돼 있는 상태의 샘플 또는 상용화 상태의 견본품(유효기간이 1년 이상 여유 있는)
- 라벨의 재질
- 고유색상이 지정된 label 도안 및 실물 각 3매

- Bioavailability / Bioequivalence Studies (for Rifampicin)
- 수입된 제품의 경우
- Certificate of Free Sale from Country of Origin duly authenticated
- by the territorial Philippine Consulate
- Regulatory Agency Certificate attesting to the status of the
- manufacturer as to competency, reliability of personnel and facilities duly authenticated by the territorial Philippine Consulate
-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
- General information
- Studies done on the plastic to substantiate claim that product is
- safe to use
- Test procedure and limits
- Empty plastic container and closure with corresponding proof of
- payment for laboratory analysis
- 새로운 약품(적용되는 경우)
- Submit copy of ABC approval on pre-clinical, clinical, protocol
- for Monitored Release
- Copy of ABC approval on the rationale of Fixed Dose Combination
- Product (if applicable)
- Copy of ABC approval of PMS or letter of Extension of MR status(if applicable)

요금

(단위: 필리핀 페소)

약제 분류	최초(1년 유효 기간)	갱신(5년 유효 기간)
새로운 약재	20,000 / 3년	-
브랜드 명이 없는 약재	2,000	7,500
브랜드 명이 있는 약재	3,000	10,000

주: 현지화 환율- US \$1 = 52.00페소, 2006년 3월 기준

그 밖의 경우	금액
재 신청 (최초 / 갱신)	1,000페소

자료: 식품 의약품 관리국(Bureau of Food and Drugs)

다. 프랜차이즈 분야

필리핀 내 프랜차이즈 부문의 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관계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규들이 있다.

- Intellectual Property Code
- 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Charter on Obligations and Contracts
- Retail Trade Law
- Retail Liberalization Act

이와 함께, 다음에 언급하는 인허가 및 기타 사항도 진출 과정에서의 법률 행위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지방정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식품의약청(the Bureau of Food Drugs) 등 관련 기관/부처의 승인 절차
- 협약서(Memoranda of Agreement), 진술서(Affidavits), 기권/포기각서(Waivers), 공증 서류(Notarized documents) 등 협상방안
- 주재국 관련 법규, 도덕적 관습, 공공 질서 및 정책 등에 반하지 않는 조건
- 프랜차이즈 부문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 회사와의 협력
-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Management 지원

7. 지적재산권

가. 개 황

필리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가입국으로 2002년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공연 및 음반협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도 가입, 법적인 기반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이 미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준수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2006년 이래 필리핀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위해 1997년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과 2000년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을 제정하였지만 저작권 미소지자의 방송, 재방송, 위성 재송출 등에 대한 법적 제재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재권 연구소(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와 훈련센터(Training Institute)를 설립하고, 광미디어 위원회, 세관 지재권 부서를 설립했지만 예산 문제로 실질적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재권 위반자에 대한 필리핀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 물음 캠퍼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 2008년 발효된 의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개정, 미국 배급업자들에 따르면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국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된 상태이다. (미국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NTE 2009)

필리핀 법정에서 지재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가 드물고 2008년 필리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재권 사범은 3건에 불과하며, 20년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또한 2001년 이후 지재권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형 무단 복제업체나 배급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영상물 산업으로, 2008년 잠재 매출액은 63억 페소(1억 1,250만 달러)이나 불법 복제물로 인한 손실액이 49억 페소(8,750만 달러)에 달해 실제 매출액은 14억 페소(약 2,5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두 번째로 피해가 큰 분야는 영화 산업으로, 잠재 매출액은 70억 페소(1억 2,500만 달러)이나, 해적판으로 인한 손실액이 30억 페소(5,350만 달러)에 달하며, 음반업계 또한 2008년 매출액은 13억 페소(2,32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19억 페소(3,39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재산권 침해비율이 이같이 높아져 영화관은 1997년 1,200개에서 2004년 870개로 감소했으며, 영화제작사는 1997년 200개에서 2008년에는 50개로 줄어 들었고 연간 완성 작품도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들의 손실 외에도 오락세 30%, 부가 가치세 12% 등 정부의 세수손실도 8억 페소(1,4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Business World(2004.6.18) 보도에 따르면, 동영상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2002년의 3,0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3,3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해적 음반은 2002년 2,090만 달러에서 2003년 2,22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물 복제 비율이 2002년 80%에서 2003년 89%로, 음반 복제는 변동 없이 40%로 추정된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2003년도 해적판 비율이 95%에 이르렀으며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2003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1년 손실 추정액은 1,990만 달러에서 2002년 에는 26%가 증가한 2,500만 달러에 달했다.

현지 DVD 해적판은 정품의 최저 10%의 가격에도 판매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2,000여 건의 단속을 통해 압수된 불법 소프트웨어는 DVD 130만 장, VCD 84만 4,000장에 달했다. 2008년에는 현지 영화 산업 이 불법 복제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법규 동향

2004년 2월 아로요 대통령이 Optical Media Law로 알려진 Republic Act(RA) No. 9239호에 서명하였다.

RA 9239는 광디스크의 수입, 수출, 생산을 관할하는 법으로, 복제에 관련된 도구와 재료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Videogram Regulatory Board를 Optical Media Board(OMB)로 바꾸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 시스템을 도입, 모든 디스크에 삽입되게 함으로써 디스크 제조, 복제 등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OMB의 허가 없이 관련 제조 장비나 부품, 액세서리 등을 수입, 수출, 소유, 운영, 판매, 유통시키는 자는 3년에서 6년의 징역형과 50만 페소에서 최대 150만 페소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05년 2월 25일 RA9239의 시행령(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 특허권 획득

내국인 특허권 획득은 부진한 반면 외국인의 획득은 활발해지고 있다.

내/외국인의 특허권 획득 건수

연도	총 건수	내/외국인	Invention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2001	1679	내국인	10	189	152
		외국인	1082	5	241
2002	3268	내국인	12	428	670
		외국인	1113	47	998
2003	3890	내국인	7	806	863
		외국인	1160	43	1011
2004	2920	내국인	16	335	468
		외국인	1433	325	343
2005	1666	내국인	15	7	0
		외국인	1638	4	2
2006	1161	내국인	37	88	17
		외국인	944	3	0

자료: Philippin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06

내/외국인의 상표권 등록 건수

연도	총 건수	내/외국인	Principal	Supplemental	Renewal	Container
2001	3101	내국인	232	0	66	0
		외국인	2601	0	0	0
2002	2079	내국인	269	0	20	0
		외국인	1673	0	117	0
2003	4841	내국인	938	0	51	0
		외국인	3666	0	186	0
2004	3791	내국인	803	757	0	0
		외국인	2988	2808	0	0
2005	9400	내국인	2547	0	207	0
		외국인	6594	0	52	0
2006	13296	내국인	5207	0	19	0
		외국인	8042	0	28	0

자료: Philippin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06

라. 저작권

국립도서관에 등록한 작곡, 그림,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등 저작권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 기간은 작가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까지이며 공동 창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속자나 대리인에 대한 보호 역시 사후 50년간이다.

다음의 경우 법적 보호 기한은 30년이다:

- 정기 간행물 및 신문/ 오디오, 비디오/ 영화, 사진 영상물

기술 이전을 수반하는 라이선싱 계약은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심사를 득하여 등록해야 유효하다.

마. 상표권

- 근거 법은 Law on Trademarks, Trade names and Service marks (RA 165)인 상표, 상호, 서비스 등록에 관한 법(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이다.
-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는 상표 국에 등록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선 사용 주의로 등록하려는 상표는 필리핀 내에서 등록 이전에 2개월 이상 이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등록일로부터 20년 간 유효하며 20년마다 갱신. 5년 단위로 해당 상표가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선서 공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출원수속: 등록인의 자격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경우 지명 대리인.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사 청구. 상표권 등록필정 교부는 관보를 통해 발표한다.
- 상표법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및 5만 이상 20만 페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바. 의장권

- 근거 법은 Patent Law, RA 165(특허에 관한 법, 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이며 출원 수속, 강제 실시 권 등은 특허권에 준하며 동법 55조에 규정하고 있다.
- 담당 기관: Bureau of Patents
-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5년 단위로 해당 의장권이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선서 공술서로 갱신 가능하다.

사. 특허권

- 근거 법은 Patent Law, RA 165(특허에 관한 법, 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
- 담당 기관: Bureau of Patents
- 물질특허(Product Patent), 제법 특허(Process Patent), 장치 특허(Apparatus Patent)로 구분, 각각 인정. 보호 기한은 특허권 교부일로부터 17년이며 종료 후 5년마다 2회 갱신 가능하다.
- 출원 조건: 출원인의 발명 이전에 필리핀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 /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국내외에서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 / 특허 출원 1년 이전에 필리핀 내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지 않은 것
- 출원 제외사유: 미풍양속, 건강, 복지에 해가 되는 것 / 발명과 분리된 사상, 이론 / 상품의 개선 및 제조에 기여하지 않은 것 / 상업상의 발명. / 단지 기계적 기술로 이루어진 장치 / 의사의 처방을 나타낸 조합 약품.
- 출원수속: 등록인의 자격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경우 지명 대리인이다.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한다. 특허권 등록필증 교부는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 위반 시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10만 페소 이상 30만 페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 관련 기관

지적재산권 등록, 침해 소송제기 등은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해당 국별 로 나누어 담당한다.

- Bureau of Patents
- Bureau of Trademarks
- Bureau of Legal Affairs
- Documentation, Information & Technology Transfer Bureau
- Administration, Financial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reau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EDP Bureau

□ 연락처(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Add : G/F., IPO Bldg., 351 Sen. Gil J. Puyat Ave., Makati, Philippines
- Tel : 63-2) 752-5450/65 loc. 201 to 205
- Fax : 63-2) 897-1724
- Web Site : <http://ipophil.gov.ph>

8. 통관/운송

가. 수입 절차

수입 절차

절차	해당 기관
단순 소비재인 경우	
- 수입업자등록	CIIS of BOC
- 대상 품목의 수입 규제(제한, 자유) 여부 및 관세율 확인	BOC, AAB
- 신용장 개설	AAB
- 은행이 세관 앞 출고 허가서 발행	
- 소비재 반입 신청서(증명서 유첨) 제출	EPD
- 소비재 수입 증명서, 확인서 제출	FED
- 수입품 반출, 완료	
단순 소비재가 아닌 경우	
- 수입업자 등록	CIIS of BOC
- 대상 품목의 수입규제(제한, 자유) 여부 및 관세율 확인	BOC, AAB
- 신용장 개설	AAB
- 은행이 세관 앞 출고 허가서 발행	
-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CBMW용일 경우 BOC에 보세 반입 신청	
-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CBMW용도 아니면 BOC의 특별 수송 허가(SPT)	
- 수입품 반출, 완료	

주 1: CIIS; Customs Intelligence Investigation Service

주 2: BOC; Bureau of Customs

주 3: AAB; Authorizes Agent Bank

주 4: EPD; Entry Processing Div.

주 5: FED; Formal Entry Div.

주 6: SPT; Special Permit to Transfer

주 7: CBMW; Customs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참고로, 사전 수입 허가 등이 필요한 수입 관리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수입에 앞서 확인하고 수입을 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 관리 대상 품목을 최근 자료로 수정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는 바, 사전에 Bureau of Import Service에 문의하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사전 수입 허가 품목인데 수입품이 현지 세관에 도착된 이후 수입 허가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례에 해당되어 30%의 Penalty를 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국제공항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NAIA/마닐라 근교), Mactan International Airport(마닐라 남방 562킬로의 세부 시 소재) 2개가 있음. 마닐라의 관문인 NAIA 1은 건물의 규모가 작아 출영객 및 환송객의 출입을 막고 여행객만을 건물 내에 출입시키고 있다.

외자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NAIA 3는 2003년 초 개장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BOT 계약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마무리 공사가 완전 중단되었다. 필리핀 정부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NAIA 3를 인수해야 하나 재정 부족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NAIA 3를 일방적으로 인수를 선언하였으며, 2005년 말에는 개장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실효적인 개장 일정이 공표되지 않았다.

외국 항공사들이 입주해 있는 NAIA 터미널 1에서는 입국자가 환영객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공항 건물을 나와 택시 승강장이 있는 길을 건너 연결 통로(Extension)로 내려가면 WAITING AREA(A부터 Z까지 표시)가 나옴. 환영객은 길 건너편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여행객이 WAITING AREA에 내려온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에야 길을 건너가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불편하다.

필리핀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NAIA 터미널 2를 이용하게 되는데, 세관을 통과하여 공항을 나오면 환영객을 바로 만날 수 있다.

마닐라 국제공항 이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입국 시, 입국카드를 작성한 후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Arrival Gate를 통해 청사 건물로 빠져나가면서 입국 카드 사본 1매와 수화물 티켓(통상 짐표로 호칭됨)을 제출해야 하므로 단체 입국 시 개인별로 수화물과 짐표를 제시하는 것이 확인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한편 출국 시에는 청사 건물 입장 시에 X-ray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항 사정에 따라, 건물 바깥에서 20~30분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 비행 거리

마닐라와 주요 도시간 비행 시간은 서울 3.5시간, 동경 4시간, 상해 3.25시간, 대만 2시간, 홍콩 1.5시간, 방콕 3시간, 팔라렐푸르 3.5시간, 싱가포르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라. 국제 항구

Manila, Cebu, Batangas, Zamboanga, Iloilo, Davao, San Fernando 등의 국제 항구가 있다.

마. 운송 비용

운송 비용은 도착지 및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 선적 시기에 맞춰 아래 현지 운송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바. 운송/통관 업체

- 아펙스(APEX)
 - 25th Flr.,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 Makati City
 - 전화: (63-2) 887-5996
 - 팩스: (63-2) 887-5480, 5420, 5426
 - E-메일: egchang@apexphilippines.com
 - 웹사이트: www.apexphilippines.com
- 디펙스(DPEX)
 - Perry's Logistics Centre Naia Ave., Paranaque City
 - 전화: (63-2) 825-0100
 - 팩스: (63-2) 829-7900
 - E-메일: choi_dw@hanmail.net
 - 웹사이트: www.dpex.com
- 두라 해운항공
 - Rm 110 skyfreight Bldg., Naia Ave., Paranaque City
 - 전화: (63-2) 852-7220
 - 팩스: (63-2) 851-6950
 - E-메일: kc9698@hanmail.net
- 한진해운 마닐라지점
 - 2232 CTC Bldg., Roxas Blvd., Pasay City
 - 전화: (63-2) 831-9721, 832-2878
 - 팩스: (63-2) 551-9658, 932-2692
- 유니셉㈜
 - 3rd Flr., ECJ Bldg. Real St., Intramuros, Manila
 - 전화: (63-2) 527-4165
 - 팩스: (63-2) 525-7818
 - E-메일: jjjang@seeds.com.ph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전반적인 투자여건

필리핀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 아시아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기타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높은 시장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크롬, 니켈,

금, 동, 철 등 15가지 금속성 광물과 석회석, 대리석, 현무암 등 20가지 이상의 비금속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크롬, 니켈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동남아시아 인접 국가보다 낮은 문맹률(6.6%, 2003년 기준)과 높은 영어 사용률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노동력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문화·종교적 이질감이 적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진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출가공지대 및 민간공단 입주 시 전력, 통신, 용수 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현재 필리핀은 4개의 투자진흥공사를 통해 투자 기업들에게 소득세, 영업세 면제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와 수출입 시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등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임금상의 우위보다는 풍부한 노동력 및 노동의 질면에서 강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동력 관리 문제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노조도 매우 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 해고가 어렵다.

최근에 미국 콜센터 업체들이 현지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현지인들의 영어 실력 향상이 투자 유치 확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으며, 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제단체인 Makati Business Club에서는 회원사들에게 직원들의 영어 공인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TOEIC 등과 같은 공인 영어 시험을 기업들이 요구하면 학교들과 학생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영어 성적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나. 외국인 투자 개방화 정도

필리핀인들은 외국인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자본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인들은 외국인 투자의 증가를 필리핀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 표시로 간주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필리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 필리핀인의 생계와 고용을 확대하는 행위
- 농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
- 필리핀 소비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행위
- 수출품의 범위, 질, 양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농업, 광업, 공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관련 기술을 공급하거나 향상시키는 행위

필리핀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투자가 필리핀이 지금까지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 형태나 외국 기업과 필리핀 기업과의 합작 투자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외국 기업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다.

다.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투자 우선 순위 계획(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해당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프라가 구비된 공단 등의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 및 민간이 개발한 산업 공단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필리핀은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중산층 부재로 구매력 있는 계층이 적어 내수시장이 협소하므로 수출산업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투자 시행 전에 목표시장 설정과 투자전략 수립 시 필리핀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채산성 확보 등을 위해 공장 가동 시 필리핀 현지에서 관련 원부자재 조달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인근 타 국가에 비해 임금상의 우위는 별로 없으나 풍부한 노동력 및 노동의 질이 다소 우수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전력 요금 문제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최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업체의 신규투자는 별로 없으며, 기 진출한 업체들도 베트남, 태국,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한 산업에의 투자는 필리핀 내수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상품을 필리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타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이 유망한 품목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현지 진출 투자자들의 필리핀 투자 매력도 평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주요 기업들이 평가하는 필리핀의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월 8일 필리핀 유력 컨설팅 업체인 Wallace Business Forum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투자 매력도는 2003년의 63.7에서 62.2로 낮아져 투자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정부 정책의 가변성 등으로 투자 확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4년 9월 필리핀 주재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들이 투자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관료적 형식주의, 즉 부패(85%)를 꼽았고, 다음이 경제적 불안정성(76%), 정책의 일관성 결여(73%), 정부 태도(65%), 빈약한 도로 수송망(57%), 외화 송금의 애로 및 불안정한 환율(53%), 정치적 불안정성(51%) 등을 지적하였다.

필리핀의 투자 매력에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90%), 영어 사용능력(84%), 중간 관리자 및 기술자의 수완 수준, 현지 생활 여건(51%) 등이었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필리핀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응답 업체들이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위직의 부정 부패를 줄일 것
- 투자자에 대한 세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합리화하여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것

- 전력 공급 능력 확충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할 것
- 사업 환경을 자유롭게 하고 보호주의적 태도를 중단할 것, 공공 사업을 민영화할 것
- 합법적 사업 환경에 법원이 끼어드는 일을 최소화할 것
- 공공 부문 적자와 부채 문제를 즉각적이고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것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들 주요 기업들은 아시아에서의 투자 선호 지역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을 꼽았고, 필리핀은 일곱 번째로 꼽아, 투자 확대를 고려할 경우 필리핀에서의 사업 확장보다는 다른 나라로의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 대상지로서의 필리핀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2002년 8위에서 2003년 6위로 올라갔다가 2004년에 6위에 머물렀으나 평가한 점수로는 2003년보다 낮아졌다. 2003년에 베트남은 8위, 말레이시아는 7위였다.

2009년 들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와 많은 연관이 있으며 필리핀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에 대한 비교우위가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금액

-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통계는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8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09년 9월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파악이 가능한 것은 '07년까지이다.
- 동 자료에 의하면 '07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2,152억 페소(US\$1=Php48)로 '06년 보다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페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투자액	46,048.7	34,010.3	173,895.2	95,806.8	165,880.0	215,230.8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8

나. 국가별 투자동향

- 국가별 외국인 투자를 보면 일본이 385억 페소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대만, 네덜란드 및 **한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특히 한국은 그동안 투자금액이 미미했으나 '05년부터 한진중공업의 수빅만(Subic Bay) 조선소 건설로 급격한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다.
- '07년에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이들 대기업들의 대형 투자여부에 따라 투자금액 및 위치가 많이 좌우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국가별 필리핀 외국인 직접 투자(연도별)

(단위: 백만 페소)

국가	2004	2005	2006	2007
투자총액	173,895.2	95,806.8	165,880.0	215,230.8
일본	26,596.2	27,538.9	20,065.7	38,587.3
미국	27,108.4	14,912.7	38,199.1	36,089.3
대만	1,654.2	1,393.5	1,952.6	20,529.4
네덜란드	1,473.1	19,157.6	7,188.1	14,401.2
한국	3,260.3	10,828.4	54,326.8	12,076.5
싱가포르	1,523.6	889.5	6,396.4	44,245.9
영국	1,682.8	195.2	5,886.6	10,182.2
독일	1,345.0	417.5	305.8	3,300.8
중국	126.6	194.6	17,934.6	1,822.0
홍콩	1,430.5	92.6	552.8	1,464.1
호주	170.3	563.0	689.1	705.3
프랑스	330.2	45.2	1,106.0	745.9
말레이시아	9.8	69.4	855.7	7,561.6
태국	29.1	1,535.1	522.3	186.6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8

다. 산업별 외국인 투자동향

주요 산업별 외국인 투자금액

(단위: 백만 페소)

산업별	2004	2005	2006	2007
투자액	173,895.2	95,806.8	165,880.0	215,230.8
농업	5.1	290.5	2,381.2	125.1
광산업	229.5	7,312.9	724.1	9,654.9
제조업	43,811.7	67,730.4	112,665.3	80,832.5
전기	2,039.8	10,863.5	439.0	74,619.5
가스	96,524.0	90.2	-	533.4
수도	-	-	-	922.4
건설	1,137.9	33.9	765.9	6,817.4
무역	52.5	107.3	19,590.6	368.4
운송	26.6	391.4	1,325.2	624.9
보관	171.6	0.5	13.3	1,223.2
통신	-	-	2,962.9	1,307.1
금융, 부동산	290.7	203.1	7,626.5	10,443.8
서비스	29,606.0	8,783.1	17,385.9	27,740.1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8

- 산업별 외국인 투자를 보면 제조업이 37.5%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반도체 중심의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 '06년 이전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기, 가스,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상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전체산업의 50.1%)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 그러나 2007년 금융, 부동산,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금융업 진출은 물론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자체 기술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개황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투자는 2009 년 상반기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98 년 외환위기 이후 주춤했던 우리나라의 투자는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1 년에 급증한 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 그러다가 2005 년에는 한국인 관광객의 급증(2004 년 대비 약 30% 증가)에 따른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져 최근 10 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연간 투자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
- 2006 년 이후 한국은 한진중공업의 수빅 만(Subic Bay) 조선소 건립을 위한 직접 투자에 힘입어 필리핀 내 외국인 직접투자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투자 금액

필리핀 중앙은행 집계 기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아래와 같다. '09년 상반기 까지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누계는 262억불이며 우리나라의 투자금액은 17.7억불로 전체 투자금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당해연도	1,333.00	556.00	1,607.00	249.00	750.00
	누계	-	1,889.0	3,496.0	3,745.0	19,493.0
한국	당해연도	0.00	0.43	0.94	1.17	-0.13
	누계	-	0.43	1.30	2.40	2.20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1~6월)
전체	당해 연도	1,181.00	1,324.00	1,949.00	1,350.00	996.00
	누계	20,674.0	21,998.0	23,947.0	25,297.0	26,293.0
한국	당해 연도	0.02	3.01	14.46	29.12	4.51
	누계	266.88	325.06	519.22	1,515.37	1,777.00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hilipinas)

다. 우리나라 주요 투자기업

- 한국의 필리핀 투자는 전기, 전자, 섬유,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 건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주로 CAVITE, BATAAN 등 경제 특별구역에 위치한 공단에 분포해 있다.
- 한국의 주요 투자기업들로는 한전(발전), 한진중공업(조선소), 삼성전자(전자부품제조), 포스코(철강제조) 등을 들 수 있으며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투자 업종 및 업체

회사명	모기업	투자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 수	진출시기
한전필리핀	한전전력공사	에너지	-	단독법인	186(23)	1995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업	-	지점	26(12)	1973
삼성전자	삼성전자	제조업	CD/DVD RW	단독법인	1390(9)	2001
삼성전기 필리핀법인	삼성전기(주)	제조업	MLCC, Tantal, Chip-R, X-Tal	단독법인	3068(29)	1997
포스코PMPC	포스틸	제조업	철강	단독법인	42(4)	2008

() 안은 한국인 파견직원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외국인 투자는 40%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중 매체, 전문직종에서의 직업 행위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외국자본의 참여나 지분소유가 금지된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 영역에 있어 100% 외국 자본 투자가 가능하나 인센티브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네거티브 리스트 C에 포함되더라도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투자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기업에 금지된 산업

사기업에 금지된 산업은 없음. 필리핀 헌법은 사기업의 기업 확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천연 자원의 탐사나 개발 중 대규모 광업의 생산품 분배 계약(MPSA) 및 소규모 광업 등은 국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자원 탐사나 개발의 경우 필리핀 민간 지분 60%인 개별 기업과 공동 생산이나 합작 투자, 생산물 공유 계약을 할 수 있다.

2) 외자 소유에 대한 규제

옴니버스 투자법 1987은 다음과 같은 기업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 생산품의 최소 70%를 수출하는 수출 위주의 기업.
- 첨단기업
- 수출 가공 지대 관리청에 등록한 기업

투자청(BOI)은 투자우선순위계획(IPP)에 의거 저개발 지역에서의 비개척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기업은 다음 분야에서만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하다.

- 투자우선순위계획(IPP)에 의해 '개척 산업'으로 규정된 산업
- 수출 가공 지대에 의한 수혜를 받는 산업
- Republic Act 7042 하의 과도기 네거티브 리스트 A, B, C 에 규정되지 않은 산업

필리핀에서는 합작 투자 회사의 설립이 권장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위해 현지 파트너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토지 소유는 필리핀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임대 토지에서 빌딩을 소유할 수 있다.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일반 기업은 리스의 형태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한 공유지를 보유할 수 있다.

3) 과도기의 네거티브 리스트(Transitional Negative List)

다음은 RA 7042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의 과도기 네거티브 리스트이다. 여기에는 일반 금융법(General Banking Act) 및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 통제 받는 금융업 및 보험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범례: CA – Commonwealth Act; LOI – Letter of instruction; PD – Presidential Decree; RA – Republic Act; 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OT – Build Operate Transfer

□ 헌법 및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 제한

- 외국 자본 불허 업종
 - 대중 매체(헌법 Art. XVI, Sec. 11)
 - 허가된 전문직의 수행을 포함하는 서비스업(헌법 Art. XIV, Sec.14; RA 5181, Sec. 1): 회계/ 건축/ 형사학/ 통관중개/ 엔지니어링/ 산림/ 지질학/ 법률/ 문헌정보/ 감판원/ 항해사/ 의료/ 설탕 기술/ 인테리어 디자인/ 화학/ 조경술/ 환경계획/ 배관공사 소유권/ 복지사업/ 교육/ 농업/ 어업
 - 미화 250 만 달러 이하의 자본을 가진 소매 무역 회사(RA 8762, Sec. 5)
 - 협동조합(RA 6938, Ch III, Art. 26)
 - 사설 경호(RA 5487, Sec. 4)
 - 소규모 광산(RA 7076, Sec. 3)
 - 군도,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수산자원의 활용 및 강, 호수, 만, 개펄 내에 소규모 수산자원의 활용(헌법 Art. XII. Sec. 2)
 - 투계장의 소유, 운영, 관리(PD 449, Sec. 5)
 - 핵무기의 공급, 제조, 수리, 선 구매(stockpiling) (헌법 Art. XII. Sec. 2)
 - 생·화학, 방사선 무기의 공급, 제조, 수리, 선 구매(stockpiling)
 - 폭죽 및 기타 불꽃 장치의 제조(RA 7183. Sec. 5)
- 20%까지 외국 자본 허용 업종
 - 사설 라디오 통신 네트워크(RA 3846)

- 25%까지 외국 자본 허용 업종
 - 국내외 고용에 관련된 인력 지원(recruit)업 (PD 442, Art 27)
 - 지방의 관급 건설이나 수리 계약(CA No. 541, Sec 1; LOI No. 630)
 - 단, RA 7718 에 명시된 기간시설/개발 프로젝트; 외국 자본 및 원조 프로젝트와 국제 경쟁 입찰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제외
 - 방위관련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계약(육·해·공군 및 해안경비, 병기고, 병영 막사, 보급소, 격납고, 비행장, 병원 등) (CA 541, Sec. 1)
- 30%까지 외국 자본 허용 업종
 - 광고업(헌법 Art. XVI, Sec. 11)
- 40%까지 외국 자본 허용 업종
 - 광물 생산품 분배계약(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 사유지 소유(헌법 Art. XII, Sec 7)
 - 공공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헌법 Art. XII, Sec 7)
 - 교육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기관의 소유 및 설립(헌법 Art. XIV, Sec. 4)
 - 쌀, 옥수수의 소매, 교역을 제외한 재배, 생산, 제분, 처리, 거래 행위(PD 194, Sec. 5; RA 8762, Sec. 15)
 - 정부 소유 혹은 정부 관리 기업 및 대리점, 지방당국 기업에의 원자재 및 상품 공급에 관한 계약(RA 5283, Sec. 1)
 - 공공시설 허가권이 필요한 BOT 프로젝트의 제안 및 설비 운영(헌법 Art. XII, Sec. 11; RA 7718, Sec. 2(a))
 - 심해 상업적 어로 선박 운영(RA 8550, Sec. 27)
 - 회사 조정(PD 612, Sec. 323, PD 1814)
 - 콘도미니엄 전체 소유권 (RA 4726, Sec. 5)
- 60%까지 외국 자본 허용 업종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금융 회사(RA 5980, Sec. 6; RA 8556)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투자 회사(PD 129, Sec. 5; RA 8556)

□ 보안, 국방, 국민 보건상의 위험, 혹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외국 자본 소유 제한

- 외국 자본 한도 40%까지 허용 업종
 - 총기류, 탄약, 무기, 군용물품, 폭발물, 조명탄 및 그 부품 또는 그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제조, 수리, 저장, 혹은 배포
- 필리핀 경찰청 허가 사항
 - 총기(권총 및 소총), 총기류의 부품
 - 무기류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의 장비류
 - 화약, 다이너마이트, 폭발물품, 폭발물 제조를 위한 성분
 - 망원경, 적외선 조준기 및 유사 장비
-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
 - 전쟁용 총기류 및 탄약, 핵 무기류, 군수품 및 관련 부품
 - 총포류, 포탄, 사격통제 시스템 및 그 부속류
 - 유도미사일, 미사일 시스템 및 그 부속류

- 우주선 및 그 부속 시스템, 항공모함 및 보조함
- 무기 수리 및 유지 장비, 군 통신장비, 야간의 식별용 암시장비
- 생물학 무기 구성 요소, 군사 훈련 장비
- 기타 규제 및 허가 사항
 - 위험약품의 제조 및 유통(RA 7042; RA 8179)
 - 사우나 및 스팀 목욕업, 마사지 클리닉 및 유사 업종은 국민 보건 및 윤리에 미칠 위험으로 인하여 법의 규제를 받음(RA 7042; RA 8179)
 - 경마장 운용, 소유, 경마의 수입과 같은 오락 관련 영업(RA 7042; RA 8179)
 - 자본금 20 만 달러 이하로 운영되는 내수 기업(RA 7042; RA 8179)
 - 첨단 기술을 소유하거나 최소 50 인의 직접 고용인을 고용한 기업으로서 자본금 10 만 달러 이하로 운영되는 내수 기업(RA 7042; RA 8179)

□ RA 7042 및 기타 법규, 행정규제 및 일반 관행에 의해 규제 받는 영역

- 40%까지 외국 자본 허용 분야
 - 상품의 제조와 무관한 수입 및 도매 행위(RA 7042)
 - 라이선스나 특정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투자청(BOI)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이외의 다른 중앙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규제를 받거나 RA 7042 의 발효일 당시 기존의 행정규제 및 관련 행정기관의 관례에 따라 필리핀 국민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업(RA 7042)
 - 관광 에이전트
 - 관광 숙박업(기숙사, 여인숙)
 - 각종 집회 조직자(Convention and Conference organizer)
 - 전문적 재보험 서비스 및 보험중개를 포함한 생명 및 비생명보험 대리점
 - RA 7042 발효일 현재 라이선스 계약 기간 동안 외국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기술, 노하우, 브랜드 네임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필리핀인이 국내 시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조립, 가공, 제조하는 외국인 라이선스 제공자나 그 동업자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RA 7042)

4) 소매업

- 소매업은 1999년까지는 외국인 지분 소유가 불허되었으나 3월 7일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소매업 개방화 법안(REPUBLIC ACT NO.8762)에 서명함으로써 수년간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소매업이 개방되었다. 그러나 최소 자본금이 너무 많고 제약이 많아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 동 법은 과거에 금지됐던 소매업(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모든 업종)을 아래의 4가지 CATEGORY로 분류, 그 중 B, C, D에 해당되는 소매업에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CATEGORY A: 납입 자본금 250 만 달러 이하의 규모로 여전히 필리핀 개인 및 법인만 지분 소유 가능
 - CATEGORY B: 납입 자본금 250 만~750 만 달러 규모의 소매업으로 법안 발효 후 2 년까지는 지분의 60%까지 소유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100% 소유가 가능
 - CATEGORY C: 납입 자본금 750 만 달러 이상 규모의 소매업으로 외국인의 100% 소유 가능(다만 CATEGORY B, C 모두 매장 설립 비용이 83 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 CATEGORY D: 고급, 사치품을 판매하는 납입 자본금 250 만 달러 이상 규모의 소매업으로 외국인 100% 소유 가능
- 그러나 위 4가지 CATEGORY에 속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 기업만이 소매업에 진출할 수 있다.
 - 본국 모기업의 순 자산가치 기준: CATEGORY B, C 의 경우 2 억 달러, D 의 경우 5,000 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 본국 모기업의 매장 기준: 전세계 어느 곳이든 5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매장 중 하나의 자본금이 250 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 소매업 경험: 5 년 이상 소매업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소매업 개방 상호주의 기준: 필리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매업 투자가 개방된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소매업 허가를 받더라도 매장 이외에서의 상품 판촉 활동은 금지되며 최소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필리핀 중앙은행이나 통상산업부에 의해 확인된 자본금이어야 한다.
- 필리핀은 막사이사이 대통령 시절인 1954년 소매업 금지 법안을 발효, 외국인의 소매업 진입을 금지한 바 있다. 당초 동 법의 취지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화교들의 소매업 행위를 제한하여 필리핀인들의 소매 행위를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화교들이 귀화 등 절차를 거쳐 소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게 됨에 따라 당초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화교들을 타 외국 업체들에게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소매업 환경 또한 소매금지법 발효 시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재래 시장과 단순 물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형태의 소매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ENTERTAINMENT COMPLEX의 역할을 하는 대형 쇼핑몰이 늘었으며 이에 견주기 위해 일정 자본금 이상의 소매업 진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 그러나 자본금 하한선이 너무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여전히 외국 업체에게는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소매 유통업에 공식 진출한 외국인 투자 업체는 미국계 PriceSmart 한 곳뿐이다.

나. 투자 허가

-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
 -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허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투자 허가/등록 기관
 -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 받는 경우와 수혜를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인센티브 수혜 경우

- BOI (Board of Investment: 투자청): IPP (Investment Priority Plan: 인센티브 부여 대상 리스트로 매년 갱신하며 일반적으로 4월 경에 당해 년도 리스트 발표)의 대상이 되는 투자건 의 인센티브부여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2006년 자료는 필리핀 투자청 홈페이지(www.boi.gov.ph) 에 있는 'Doing Business'에서 알 수 있다)

-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공단관리청): 정부소유 공단(수빅 및 클락 특별경제지대 제외) 및 민간 개발 공단으로서 PEZA가 승인한 공단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공단 입주 허가 및 입주 업체 관리, 지원을 담당
- SMBA(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수빅만 관리청): Subic Bay Freeport Zone 입주 허가, 입주 업체 관리, 지원 담당 기관
- CDC(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클라크 개발공사): Clark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허가, 입주 업체 관리, 지원 담당 기관

2) 인센티브 비 수혜 경우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식회사, 합자 회사의 경우 이곳에 등록
- BTRCP(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내의 부서로서 개인소유 기업의 경우 동 기관에 등록

★ 인센티브 수혜의 경우 상기 각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SEC 또는 BTRCP 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투자 관련 기관

- BSP(Central Bank: 중앙은행): 상기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외국 기업의 경우 중앙 은행에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과실송금 및 투자 자본 철수 시 동 중앙은행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국세청): Tax Identification Number 발급
- MMA(Metro Manila Authority) : 필리핀의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지역 내에서의 사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동 기관의 허가 필요(Location Clearance/ Building Permit/License to do Business)
- City Hall 또는 Municipal Office : Metro Manila 이외 지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청 또는 관할 행정 기관에서 영업 허가, 건축 허가 등 MMA와 같은 허가
- SSS(Social Security System): SSS는 사회보장기금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동 기관에 등록하고 피고용인별 SSS Number를 받아야 한다.
- Phil Health Corp.: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기금으로 피고용인 부모
- MERALCO(Manila Electric Co.) : 메트로 마닐라 및 인근 수도권 일대를 커버하는 민간 전력 판매 회사로 전력 연결 신청
- Local Electric Utility Firm: MERALCO 사업 지역 이외 지역은 지역별로 담당 전력 판매 회사가 있으며 해당 지역 회사에 전력 연결 신청

- MWSS(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메트로 마닐라 지역 용수 공급 기관으로 용수 공급 신청
- Local Water Utilities Administration: 메트로 마닐라 이외 지역은 각 지역 별로 용수 공급 기관이 있으며 해당 지역 기관에 용수 공급 신청

4) 허가서 획득 이후 제반 절차

기타 투자 관련 기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 등록, 납세번호 획득, 사회 보험 기금 등록, 의료보험 가입, 용수 및 전력공급 신청, 시청 등 지방 행정기관에의 사업자 등록 및 건축 허가 획득, 노동부 등록 등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

투자청의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신청, PEZA 등록 등을 위한 사전 조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나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신청 및 SEC 등록에서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그 이외의 절차는 통상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할 경우 시간과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세세한 작성 방법, 관행 등을 잘 모르므로 시행 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입주 기업의 경우 제반 사항 등을 대행해 주는 변호사 비용이 1,200~1,500 달러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필요 서류의 준비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특별 허가 취득 절차

- Alien Employment Permit (AEP)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DOLE)
- Registration for Operation of Customs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CBMW)
- 공장 내 보세구역 설정: Bureau of Customs
-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Dep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ENR) 내의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 Projects involving land use/conversion(토지 사용/전용이 수반되는 프로젝트): Housing & Land Use Regulatory Board(HLURB), National Housing Authority(NHA),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
- Permit to construction/operate pollution control devices(에너지, 화학, 염색 등 환경 오염 가능 공장,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허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ENR)
- Trademarks/Patents registration: Bureau of Patents, Trademarks & Technology Transfer (BPTTT)
- Registration of power Generation projects : National Power Corporation (NAPOCOR)
- Philippine Standard(PS) Quality Mark (내수 판매 소비재의 필리핀 표준 적합성 여부 심사): Bureau of Product Standards (BPS)
- Clearance for projects which involve food, chemicals and others : Bureau of Food and Drug (BFAD)
- Registration of tourism projects : Department of Tourism (DOT)
- Franchise for mass transit operation: 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LTFRB)
- Telecommunication projects: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NTC)
- License/clearance for defense-related projects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

- Registration of advanced technology(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선진기술 등록):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OST)
- Clearance for health-related projects : Department of Health (DOH)
- Clearance for oil exploration activities : Office of Energy Affairs(OEA)
- 광업권 획득: Mines & Geosciences Bureau (MGB)

5) 투자 자금의 송금

PEZA 등록 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BOI, PEZA 등의 승인이 난 후 SEC(증권 거래국)에 등록(투자인센티브 수혜 기업이 아닌 경우 바로 SEC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동 기관에 등록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납입 자본금의 필리핀 내 은행에 납입해야 한다.

이후 SEC 등록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은행(BSP)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이익금 송금, 투자 자본 철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의 경우 송금 후 SEC 대신 필리핀 무역산업부 내 BTRCP(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에 등록하면 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지사 개설 환경

외국회사의 지점(Branches of Foreign Companies)은 모회사가 지점의 모든 활동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지점보다는 자회사(Subsidiary Corporation) 설립을 선호한다.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본사고객을 위한 정보배포,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등 간접 활동만이 가능하다. 동 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필리핀은 지점, 지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개념이 없어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나. 지사 및 대표사무소 설립 방법

지사(Branch Office) 설립을 위한 구비 서류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유사하며 지사 역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 지사 설립 허가 신청 전 투자자는 최소 미화 20만 달러를 필리핀 현지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지사 설립 허가 이후 60일 이내에 SEC에 최소 10만 페소(약 2,000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단, 최신 기술 및 직접 고용인 50인 이상 지사의 경우 10만 달러, 수출 지향 지사의 경우 예치금은 없다. 동 예치금은 채권자에 대한 의무 이행 담보금 성격을 가지며 총소득(Gross Income)이 500만 페소(약 10만 달러)를 넘을 경우, 매 회계 연도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총소득의 2% 해당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하고 매년 총소득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증가분의 2% 상당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먼저 투자국의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본사 고객을 위한 정보 배포, 상품 판매촉진 활동 등 간접 활동만 가능하다.

동 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본사는 사무소 운영을 위해 최소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운영비를 송금해야 하며,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필리핀 중앙은행(BSP) 및 국세청(BIR)에 사업자 등록의무를 지지 않고 증권거래 위원회(SEC)의 등록만으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

다. 기타 회사 설립 방법

1) 회사 설립

- 회사의 종류: 자본금의 조달 형태를 기준으로 주식회사(Stock Corp.)와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Non-stock Corp.)로 구분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 외국 회사의 지점이 있다.
- 주식회사(Stock Corp.)의 설립 절차
 - 기본 정관의 작성 및 제출
 - 5인 이상 15인 이하(과반수가 필리핀 거주자이어야 한다.)의 발기인이 기본 정관을 작성, 공증인의 서명과 함께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제출
 - 기본 정관 수록 사항: 회사 명칭, 회사 설립 목적, 본사 소재지(필리핀 국내에 한함), 회사 존속 기간, 발기인 성명 및 주소, 회사 사원의 성명 및 주소(5인 이상 11인 이하, 그 중 2인 이상이 필리핀인), 총 자본액, 주식 총수 및 1주의 금액(무액면주의 경우 주식 수), 인수 주식의 총수(무액면 주식의 경우 주식수),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및 인수액
 - 신문지상 공고 및 정관의 법원 제출
 -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인 설립 사항을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동 정관을 법원에 제출, 회사 설립 증명서를 발급
 - 부속 정관의 작성 및 제출
 - 기본 정관이 제출된 후 1개월 이내에 부속 정관을 작성, 제출
 - 부속 정관 수록 사항: 정기 및 특별 주주총회의 소집 시기와 장소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주식의 의결권,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및 권한 등, 주주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인수 주식의 과반수 주주의 동의를 얻어 기재

2) 합작법인 설립 절차

-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와 동일
- 단, 외국인의 투자 지분이 자본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권거래 위원회(SEC)와 기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투자청(BOI) 또는 수출공단 관리청(PEZ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투자 형태의 결정

필리핀 투자 시 합작 투자, 단독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전략적 측면 이외에 법적 제한으로 합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업종 이외에 외국인 토지 소유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합작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필리핀의 공단은 정부 소유 공단과 민간 개발 공단이 있는데 정부 소유 공단의 경우 부지 임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100% 단독 투자를 할 수 있으나 민간 개발 공단의 경우 분양(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규정 때문에 100% 외국인 단독 투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단 이외 일반 지역에서의 사유지 임차도 가능한 방법일 수 있으나 지주에 따라 장기 토지 임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경우 현지 파트너의 판매망, 인력 활용 측면에서 합작 투자가 바람직하며 노무 관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노무 관리를 맡기는 합작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노조 설립이 자유로우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노동 정책이 권위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선진국에 가까운 민주적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KMU 등 전문 노동 운동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투자 업체들의 큰 애로사항 내지 우려사항 중 하나가 노사 분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노조가 개입되어 회사가 문을 닫는 사례들이 있고 고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노조 문제는 전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다.

필리핀 기업도 노사 분쟁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꼭 현지 파트너가 외국인 경영진보다 노무 관리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현지인들의 문화와 정서에 생소한 외국인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 파트너 선정

독자적으로 파트너를 물색하기 힘들 경우 필리핀 투자청(BOI)에서 합작 파트너를 소개해 주고 있다.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내수 판매, 관리 등 파트너의 역할을 먼저 분명히 정하고 이에 적절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있는 필리핀 사업가들은 제조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부동산, 상업, 금융 기타 서비스업 등을 선호하고 있어 합작 파트너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합작하기를 원하는지 사전에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트너의 목적이 우리 측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필리핀에서 파트너 선정에 있어 애로 사항은 경제적인 상류층과 하류층이 너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자본 여력이 있고 왕성한 기업 의욕을 가진 중소기업의 존재가 미미하다는 점이며 또한 자본과 기업 경영 의욕, 능력이 있는 중견 기업들도 제조업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다.

바. 공장 설립 절차

1) 공장 설립 인허가

공단이 아닌 일반 지역의 경우 공장 설립 이전에 토지사용허가(Land Use Clearance) 및 공장 건축허가(관할 시청 또는 단위 행정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1주에서 2주 소요되며 환경청으로부터 설치 예정 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증명 서인 Environmental Clearance Certificate(ECC)를 발급 받아야 한다(동 절차도 변호사가 대행)

2) 공장 입지 여건 분석

□ 교통 여건

필리핀의 운송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내륙 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 운송이며 철도 운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관계로 도로 운송에도 한계가 있으며,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도 부두 시설의 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국내 해상 운송은 외국회사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국내 선사들이 노선 별로 독점 또는 과점-담합을 하고 있어 해상 운송비가 턱없이 비싼 경우가 많다. 육상 운송의 경우에도 총 운송비가 실질적인 트럭 운송비의 4~5배가 되는 등 운송 부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물류비용이 높은 업종의 경우 입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고로 마닐라-부산 간 40 Foot 컨테이너 해상 운송비가 약 500달러라면 민다나오-마닐라 간 운송비가 3배에 달하는 1,500달러에 달한다. 이는 과거 3개 선사가 1개 선사로 합병하면서 동 노선이 독점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카비테 지역에서 마닐라 항구까지 40F 컨테이너 운송비가 800~1,000달러까지 소요되고 있는데 실제 트럭 운송비는 160~200달러 수준이나 운송 경비료(실제로는 경비가 동등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지불함에도 운송 도중 분실된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세관원 등 관계 직원의 야간 근무 수당, 사례비(실제 모든 과정에서 소액의 사례비가 소요되기는 하나 운송 회사가 더 붙이는 경우도 있다).

운송 회사를 바꾸어도 이러한 청구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례화되어 있어 불합리한 청구임을 알아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음) 등 부대 경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게 된다.

공단이 밀집해 있는 마닐라 남쪽의 카비테 지방, 라구나 지방의 도로 사정도 열악하여 30~40km 떨어진 곳의 평일 자동차편 소요 시간이 2시간도 걸리며 러시아워나 강우량이 많을 경우는 3~4시간도 걸리기도 한다. 특히 인근에 주거지가 있을 경우 트라이시클(삼륜 모터사이클 또는 자전거), 지프니 등 저속 차량이 많아 거리에 관계 없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육상 운송 소요 시간은 거리로 가능하기 어렵다.

또한 대형 트럭(6륜 이상)은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까지만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통행할 수 있는데 국제항인 마닐라 항 및 마닐라의 국제공항인 아키노 공항으로의 수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메트로 마닐라를 통과해야 하므로 수출입 화물은 야간에만 수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출입 화물 수송 측면에서 본다면 마닐라 남쪽 인근의 어떤 공단이나 지역도 운송 사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까지 있는 남부 고속도로(South Super Highway) 인근 지역은 비교적 교통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마닐라 북쪽으로도 클라크(Clark) 특별 경제 지대까지 70km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있으므로 동 고속도로 주변이나 클라크 지대, 클라크와 접해 있는 Angeles Industrial Park공단 등(클라크는 최근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마닐라에서 클라크까지의 철도

개설과 함께 아키노 공항을 대체하는 필리핀의 관문으로 개발할 계획임) 교통 여건은 까비테, 라구나 지역에 비해 별로 나쁘지 않다.

내수 시장이나 필리핀 내 원자재 조달이 필요 없는 수출 가공업의 경우 자체 국제항구 및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수빅(Subic) 특별 경제 구역이 물류 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전력/용수 공급 방안 및 절차

전력 대량 수요 기업의 경우 지역 전력 판매 회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전력 생산회사로부터 직접 라인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전기료는 한국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 필리핀의 발전이 대부분 중유를 쓰는 화력 발전이기 때문인데 향후에는 팔라완 섬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가스 발전과 지열 발전, 석탄 화력 발전 등 연료 비용이 저렴한 발전소를 주로 건설할 계획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인하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민다나오 섬 일대가 가장 저렴한데 타 지역에 비해 약 40% 저렴하다. 이는 민다나오 섬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수력 발전량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업종은 민다나오 섬에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나, 민다나오 지역은 메트로 마닐라, 수빅, 세부 등지에 비해 치안이 불안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필리핀은 1994년 이후 전력 부족이 거의 해소되어 현재로서는 도시 지역 및 공단 지역의 경우 전력 부족으로 인한 단전은 거의 없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단전이나, 대부분의 전력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우기에는 수시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단전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상 대책은 있어야 한다.

전력 사용의 증가로 향후 북부의 루손 섬에도 전력 부족 사태가 예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필리핀 정부는 지난 1996년 ‘한국전력’과 125만kW급의 ‘일리한(Liljan) 발전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였다. 2002년 5월 한전은 동 발전소에서 125만kW의 전력을 생산하였는데 이 전력량은 한국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100만kW)’보다 큰 규모이다.

정전 및 단전 사태에 대비하여 대부분 자체적으로 비상 발전기(Back-up Generator)를 설치하고 있는데 일반가정(단독주택)과 병원용을 제외한 모든 발전기는 에너지 관리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ERC)에 등록대상이다. 미등록 시 대당 10만 페소의 벌금과 지체 일수당 1,000 페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력산업개혁법 행령;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of Republic Act 9136 –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of 2001)

일부 공단의 경우 물 과다 소비 업종은 입주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업종의 경우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각 지역 급수 기관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방법 외에 공단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 저수조 설치 등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도 많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 통신 여건

1993년부터 1개사 통신 독점 체제를 개혁하여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복수 통신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전화라인 설치 의무량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화망 확충에 노력한 결과 전화 보급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휴대폰은 다수 업체의 경쟁 체제로 인해 기기 가격 및 통화료가 한국과 비슷할 정도로 발전한 단계이고 섬나라의 특성상 유선보다 무선의 발전속도가 앞서는 형국이나 우기에 불통되거나 메시지 전달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공단 및 상업지구 등 통신 케이블이 부설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회사용 전화라인의 설치에는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며 국제전화를 포함한 전화료도 적절한 수준이며 통신 품질도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층에게는 전화가 사치품에 속하고 전화 보급률도 낮은 수준이며 공중전화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들과의 연락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다. 최근 저가 단말기 보급 및 이동통신사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 등으로 휴대 전화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서도 이동전화를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 노동력 확보

필리핀은 전국 어느 지방도 문맹률이 10% 이하이고 전문 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실업률이 10%를 웃돌고 있으나 불완전 고용이 20% 정도 되어 실제 취업률은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국 어디에서나 노동력 확보는 어렵지 않다.

일반 노무자도 최소 고졸 인력, 많은 경우 전문 학교 내지 대학 졸업자로 총당할 수 있다. 노동력 확보와 관련 카비테, 라구나, 메트로 마닐라 등 공장 밀집 지역은 미소한 월급 차이에도 쉽게 이직을 하는 등 이직률이 높고 노조 세력도 영향을 미치는 등 불리한 면도 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숙련 노동자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면에서는 공단 밀집 지역이 유리하다.

3) 입지 선정

□ 토지 임차/ 매입

- 토지 임차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국가소유공단(4개 공단) 및 수빅, 클라크 특별 경제 지대의 경우로 장기 임대 방식이다. 현재 4개 국가소유공단은 개발 완료된 곳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기존 입주 업체가 철수할 경우에만 신규 입주가 가능하다. 각 공단들이 추가 확장 또는 유보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수빅의 경우에도 기존 공단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 둘째, 공단 이외 개인 사유지를 임차(최장 50년)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높아 임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지주들이 합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토지 매입도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 첫째, 민간개발 공단을 분양 받는 것으로 개발 업체로부터 매입한다. 민간개발공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 완료 후 판매 방식이 아닌 선분양 방식을 취한다.

- 둘째, 공단 이외의 일반 지역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장 용지로의 사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필리핀 헌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은 토지 지분의 40% 밖에 소유할 수가 없어 합작 투자가 불가피하다.

4) 공장 건물 건축

건축 허가는 해당 시청 또는 자치단체에서 받는다. 필리핀 건설업체들은 공기도 오래 걸리고 약속한 공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조업 시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6월에서 10월에 걸친 우기에는 작업이 느려지고 태풍 등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에서 샌드위치 패널 등 조립식 자재를 수입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도 신속한 공장건물 건축을 위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OI 인센티브를 받는 투자업체나 수출가공지대 입주 업체는 공장 설비는 물론 건축 자재도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1996년 말 컨테이너 공장을 설립한 한국전자의 경우 한국에서 조립식 패널을 수입하여 신속하게 공장을 건축한 바 있다.

6. 투자입지여건

가. 필리핀의 산업 공단 개요

필리핀 산업공단 관리청인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77개(2006년 6월 기준)의 공단에 1,129개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공단은 북부지역의 Luzon에 위치하고 있다.(필리핀은 북부 Luzon, 중부 Visayas, 남부 Mindanao 등 3개 지역으로 구분)

중앙정부가 개발한 Public Economic Zones으로는 Baguio City Economic Zone, Bataan Economic Zone, Cavite Economic Zone, Mactan Economic Zone의 4개 공단이며 총 438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공단(Private Economic Zones)으로는 Laguna Technopark,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Light Industry & Science Park 등 41개 공단이 있으며 총 529여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그 외에 정부가 별도 지정한 IT공단 및 지정 건물들은 Eastwood City Cyberpark 등 31개로, 161개의 IT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관광 경제 공단(Tourism Economic Zone)의 경우 Eastbay Arts, Recreation and Tourism Zone이 있으며 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공단 내에 수출가공지대와 일반 지역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 업종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가공지대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만 입주할 수 있으며 수출입 통관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편의 제공 외에도 조세 감면,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나 이는 공단에 입주한 기업에게만 국한되는 혜택은 아니며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및 투자 우선 순위에 포함된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부여된다.

일반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공단 입주의 장점은 조세상의 특혜보다는 사회간접자본 이용, 공단 관리 업체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공단 외 지역보다 유리하다.

초기 단계에는 국가 공단으로 수출가공지대를 개발하여 임대 방식에 의해 활용하였으나 점차 외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단 개발에 나섰으며 정부에서도 재정 부족으로 민간 공단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민간 공단은 대부분 임대 방식이 아닌 매각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선 분양 후 개발의 경우가 많아 정부의 토지 전용 허가 등을 살펴본 후 매입해야 한다.

나. 대표적 공단 소개

면적상으로는 Bataan Economic Zone이 가장 크나 아직 절반 정도밖에 개발되지 않았으며, 입주업체가 가장 많은 공단은 수도권인 Luzon 지역의 메트로 마닐라 인근 Cavite Economic Zone(CEZ)로 이곳에는 한국 업체들도 많이 입주해 있다.

다. 투자 인센티브 대상 공단

구분	공단 특징	경제특구공단(사무소) 명	위 치
1	Public Economic Zones	Baguio City Economic Zone	Loakan Road, Baguio City
2		Bataan Economic Zone	Mariveles, Bataan
3		Cavite Economic Zone	Rosario, Cavite
4		Mactan Economic Zone	Lapu-Lapu City, Mactan, Cebu
5	Private Economic Zones	Agus Industrial Estate	Bulac, Sta. Maria, Bulacan
6		Amkor Technology Special Economic Zone	Brgy. Cupang, Muntinlupa City, Metro Manila
7		Angeles Industrial Park SEZ	Calibutbut, Bacolor, Pampanga
8		Calamba Premiere Industrial Park	Batino, Parian and Barandal, Calamba, Laguna
9		Carmelray Industrial Park I	Canlubang, Calamba City, Laguna
10		Carmelray Industrial Park II	Punta & Tulo, Calamba City, Laguna
11		Cebu Light Industrial Park	Basak, Lapu-Lapu City, Mactan, Cebu
12		CIIF Agro-Industrial Park	Barangay Kiwalan, Iligan City, Lanao del Norte
13		Cocochem Agro-Industrial Park	Aplaya & Danglayan, Bauan, Batangas
14		Daiichi Industrial Park	Maguyam, Silang, Cavite
15		EMI Special Economic Zone	Anabu II, Imus, Cavite
16		Filinvest Technology Park - Calamba	Punta & Burol-Bubuyan, Calamba City, Laguna
17		First Cavite Industrial Estate	Langkaan, Dasmariñas, Cavite
18		First Oriental Business & Industrial	Ilang, Bunawan District, Davao

		Park – SEZ	City
19	Private Economic Zones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Sta Anastacia , Sto. Tomas, Batangas
20		Food Terminal, Inc. – SEZ	East Service Road, Taguig, Metro Manila
21		Gateway Business Park	Javalera, General Trias, Cavite
22		Greenfield Automotive Park	Don Jose, Sta. Rosa, Laguna
23		Jasaan Misamis Oriental	Solana & Luz Banzon, Jasaan, Misamis Oriental
24		Jose Panganiban SEZ	Jose Panganiban, Camarines Norte
25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Ganado & Mamplasan, Biñan, Laguna
26		Laguna Technopark	Biñan and Sta. Rosa, Laguna
27		Leyte Industrial Development Estate	Isabel, Leyte
28		Light Industry and Science Park of the Philippines I	Diezmo, Cabuyao, Laguna
29		Light Industry and Science Park of the Philippines II	Real & La Mesa, Calamba City, Laguna
30		Light Industry and Science Park of the Philippines III	San Rafael & Sta Anastacia, Sto. Tomas, Batangas
31		Lima Technology Center	Lipa City and Malvar, Batangas
32		Luisita Industrial Park	San Miguel, Tarlac
33		Macroasia Ecozone	Nichols Field, NAIA, Pasay City
34		Mactan Economic Zone II	Basak, Lapu-Lapu City, Cebu
35		MRI Ecozone	Sabang, Danao, Cebu
36		New Cebu Township	Cantao-an, Naga, Cebu
37		People's Technology Complex	Maduya, Carmona, Cavite
38		Philtown Technology Park	Trapiche, Pagaspas & Baloc-Baloc, Tanauan, Batangas
39		Plastic Processing Center	Alion and Cabcaban, Mariveles, Bataan
40		Rapu-Rapu Ecozone	Malobago and Pagcolbon, Rapu-Rapu, Albay
41		Rio Tuba – SEZ	Rio Tuba, Bataraza, Palawan
42		Sarangani Economic Development Zone	Cannery, Polomolok, South Cotabato
44		Subic Shipyard SEZ	Cabangaan Point, Subic, Zambales
45		Tabangao Special Economic Zone	Tabangao, Batangas
46		TECO – Special Economic Zone	Bundagul and Paralayunan, Mabalacat, Pampanga
47		Toyota Sta. Rosa (Laguna) Special Economic Zone	Pulong Sta. Cruz, Sta. Rosa, Laguna
48		Victoria Wave Special Economic Zone	Malaria, Tala, Caloocan City
49		West Cebu Industrial Park	Arpili & Buanoy, Balamban, Cebu
50		YTMI Realty Special Economic Zone	Brgy. Makiling, Calamba City, Laguna
51	IT Centers and Buildings	6750 Ayala Avenue Building	Ayala Avenue, Ayala Center, Makati City
52	IT Centers and Buildings	Arcenas Estate IT Building	Banawa Hills, Barangay Labangon, Cebu City
53	IT Centers and Buildings	Asia Town Information Technology Park	Lahug and Apas, Cebu City

54	IT Centers and Buildings	Bigfoot Information Technology Park	Barangay Mactan, Lapu-Lapu City, Island of Mactan
55		BPI Buendia Center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56		Convergys IT Building	Ayala Avenue corner Salcedo Street, Makati City
57		DBP IT Plaza	Barangay Calindagan, Dumaguete, City, Negros Oriental
58		Diliman IT Building	Commonwealth Avenue, Diliman, Quezon City
59		East Cyber Gate	169 EDSA, Manduyong City
60		Eastwood City CyberPark	E Rodriguez, Jr. Ave., Bagumbayan, Quezon City
61		EDSA Central IT Center	EDSA corner United Street, Mandaluyong City
62		E-Square Information Technology Park	For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Metro Manila
63		Eugenio Lopez, Jr. Communication Center	Mother Ignacia Avenue cor. Sgt. Esguerra St., Diliman, Quezon City
64		Exportbank Plaza Building	Exportbank Plaza, Exportbank Drive corner Chino Rocas Ave., Makati City
65		Federated IT Park	Sacsac, Bacong, Negros Oriental
66		Gateway Office Tower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67		Global Trade Center	1024 EDSA, Quezon City
68		G. T. Tower International	Ayala Ave. cor. H. V. Dela Costa St., Makati City
69		HTMT Cyber Park	86 E. Rodriguez Jr. Avenue, Barnagay Ugong Norte, Quezon City
70		HVG Arcade IT Park	HVG Arcade, Subangdaku, Mandaue City
71		Innove IT Plaza	Samar Loop cor. Panay Road,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72		Insular Life Building	6781 Ayala Avenue corner Paseo de Roxas, Makati City
73		JY Square IT Center	Salians Drive, Lahug, Cebu City
74		Leyt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Park	Brgy. Pawing, Palo, Leyte
75		Mango Square	Maxilom Avenue corner Juana Osmena Street, Cebu City
76		Marvin Plaza Building	2153 Chino Rocas Avenue corner Herrera Street, Makati City
77		MSE Center	Ayala Triangle, Ayala Avenue, Makati City
78		Multinational Bancorporation Center	6805 Ayala Avenue, Makati City
79		Northgate Cyberzon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 Muntinlupa
80		Octagon IT Building	San Miguel Avenue, Ortigas Center, Pasig City
81		Orient Square IT Building	Along Emerald Avenue, Ortigas Center, Pasig City
82		Pacific IT Center	Pascor Drive, Brgy. Sto. Nino, Paranaque City

83	IT Centers and Buildings	PBCom Tower	Ayala Avenue cor. Herrera Street, Makati City
84		Peoplesupport Center IT Building	Amorsolo Street, Makati City
85		Philamlife IT Building	Acacia Avenue, Madrigal Business Park, Brgy. Ayala Alabang, Muntinlupa City
86		Pueblo de Oro IT Park	Pueblo Business Park, Barangay Upper Carmen, Cagayan de Oro City
87		RCBC Plaza	Ayala Ave. cor. Gil Puyat Ave., Makati City
88		Riverbank Center ICT Building I	A. Bonifacio Ave., Barangka, Marikina City
89		Robinsons Big R Supercenter Cainta Junction	Ortigas Avenue Extension, Barangay Sto. Domingo, Cainta, Rizal
90		Robinsons Cyberpark	Robinsons Pioneer Complex, EDSA cor. Pioneer St., Mandaluyong City
91		Robinsons Equitable Tower	ADB Avenue corner Poveda St., Ortigas Center, Pasig City
92		Robinsons Metro Bacolod	Araneta Street, Singcang, Bacolod City
93		Robinsons Place Novaliches	1199 Quirino Highway corner Maligaya Road, Barangay Pasong Putik, Novaliches, Quezon City
94		SM CyberZone 1	Block 9, SM Central Business Park, Bay City, Pasay City
95		SM iCity	SM Central Business Park Bay City, Pasay City
96		Sta. Rosa Commercial IT Park	Barrio San Jose, Sta. Rosa, Laguna
97		Summit One Office Tower	Shaw Boulevard, Mandaluyong City
98		The Block IT Park	Villamonte Bacolod City, Negros Occidental
99		The Enterprise Center	6766 Ayala Avenue corner Paseo de Roxas, Makati City
100		UnionBank Plaza	Meralco Avenue cor. Onyx Street, Ortigas Center, Pasig City
101		V-tech Tower	G. Araneta Avenue cor. Ma. Clara Street, Quezon City
102		Wynsum Corporate Plaza IT Building	Emerald Avenue, Ortigas Center, Pasig City
103	Tourism Economic Zones	Eastbay Arts, Recreation and Tourism Zone	San Roque, Angono & Darangan, Binangonan, Rizal
104		Fort Ilocandia Tourism Economic Zone	Balacad, Laoag City, Ilocos Norte
105		Misibis Resorts and Estates	Cagraray Island, Barangay Misibis, Bacacay, Albay

7. 노무관리

가.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용, 해고 등이 법제화된 필리핀 노동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며 미국식 법제의 영향을 받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필리핀 현지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준수가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기업의 현지투자활동 혹은 교민들의 비즈니스에 애로로 작용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동법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고용, 해고 등의 행위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지 인력의 고용 시 가능하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 문서에 의한 제도운영이 일반적이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낭패를 보기 쉽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나. 고용

현지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하에 위험하지 않은 작업에만 종사 가능하며 피고용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시직으로 고용했다라도 6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동 정규직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어렵다.

다. 인력 수급

필리핀은 2008년 말 250만 여명의 실업자(실업률 8.4%)가 있는 상태로, 업종과 숙련도 여부에 상관없이 노동력의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

제조업 미발달로 고기술을 요하는 숙련 노동자의 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채용 후 일정 기간의 훈련으로 작업에 쉽게 적응하는 편이다. 하지만 가정을 중시하여 집안 일 때문에 결근하는 사례가 잦은 편이며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업무 영역 이외의 일은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나 특히 부녀자의 경우 치안 상의 문제 등으로 잔업 또는 초과근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영주의 입장에서도 생산성과 추가 비용을 감안 시 비효율적이다. 업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면 싫증을 내지 않고 반복적인 작업에도 잘 적응하며 손재주가 뛰어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 기간 훈련 후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노동시간 및 임금

1) 정규 근무시간

급여 기준 정규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다.

- 생산직: 하루 8시간 주 48시간
- 사무직: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점심시간: 하루 1시간

임금 정책은 노동 고용부 산하 National Wages & Productivity Commission(NWPC)가 관장하고 있으며 RA 6727(1989년 공포)에 기초하여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인 METRO MANILA의 최저 임금은 1일 382페소(2009 기준) 마닐라 근교로 우리 기업의 입주가 가장 많은 CAVITE의 일당 최저 임금은 1일당 266페소(Cavite Economic Zone 기준)이다.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시간외 근무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고용주 및 피고용자 모두 초과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 업체들의 경우 교통비, 식비 보조 성격의 생활 보조비(ECOLA)를 일당 50페소(2006년 기준)씩 피고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제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노동 단체들의 교통비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 시간외 근무

시간 외 근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 정규 근무일: 정상 임금의 125 %
- 휴일, 일요일 및 특별 휴일: 정상 임금의 130 %
- 야간 근무자의 근무 수당: 정상 임금의 110 %(22:00~06:00)
- 법정 공휴일(Regular Holiday)이 주당 정기 휴일과 겹친 경우 200%

휴일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하는 일요일은 별도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주당 6일 근무 후 최소한 24 시간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 노동부 권고령(Labor Department Advisory No. 2)이 발표되어, 유해 작업장,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1일 근무 시간을 8시간이 아닌 10시간 또는 최대 12시간까지로 늘릴 수 있도록 변경. 주당 근무 시간 48시간을 준수하고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면 근무 일수를 6일에서 5일로, 또는 5일에서 4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은 지불해야 한다.

3)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상이하며 사전 이를 인지하고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기관인 DOLE(Department Of Labor & Employment)의 홈페이지(www.dole.gov.p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닐라를 포함한 수도권(NCR) 지역의 서비스업 최저임금은 Php345-382이며 '09년 기준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최저임금 수준('09년 6월말 기준)

REGION	WO No./ DATE OF EFFECTIVITY	NON- AGRICULTURE	AGRICULTURE	
			Plantation	Non-Plantation
NCR	WO 14/June 14, 2008	P 345.00 - 382.00	P 345.00	P 345.00
CAR	WO 13/June 16, 2008	243.00 - 260.00	226.00 - 242.00	226.00 - 242.00
I	WO 13/June 22, 2008	220.00 - 240.00	220.00	195.00
II	WO 13/June 15, 2008	227.00 - 235.00	215.00 - 223.00	215.00 - 223.00
III	WO 14/June 16, 2008	251.00 - 302.00	236.00 - 272.00	216.00 - 256.00
IV-A	WO 13/June 01, 2008	236.00 - 320.00	216.00 - 295.00	196.00 - 275.00
IV-B	WO 04/June 19, 2008	240.00 - 252.00	198.00 - 207.00	178.00 - 187.00
V	WO 13/ July 1, 2008	196.00 - 239.00	207.00 - 217.00	187.00 - 197.00
VI	WO 17/ December 25,2008	240.00 - 250.00	218.00	208.00
VII	WO14/June 16, 2008	222.00 - 267.00	202.00 - 249.00	202.00 - 249.00
VIII	WO 15/June16, 2008	238.00	219.00	219.00
IX	WO 15/ July 3, 2008	240.00	215.00	195.00
X	WO 14/June 1, 2008	241.00 - 256.00	229.00 - 244.00	229.00 - 244.00
XI	WO 15/June 16, 2008	265.00	255.00	255.00
XII	WO 15/June 16, 2008	245.00	225.00	220.00
XIII	WO 09/June 20, 2008	233.00	223.00	203.00
ARMM	WO 11/ June 29, 2008	210.00	210.00	210.00

주: 09.5.6 업데이트 되었으며 '09년 6월말 상기 기준 적용

자료: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라. 외국인 고용

외국인의 고용은 노동법(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Labor Code) Title II 및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Rule XIV에 의거 규정되어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후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을 필리핀 내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은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Employment Permit)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취업자가 고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다른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며 이를 위반 시 노동법제 289조 및 290조에 의거, 처벌받고 추방될 수 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 후 30일 이내에 성명, 국적, 국내 및 해외 고용 직업과 체재 자격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에 권한 위임)

모든 거주자인 외국인은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에 등록해야 함. 고용 허가서는 1년 또는 2년간 유효하며 유효 기간 내에 정당한 취업의 사유로 갱신이 가능.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는 이민국(Commission on Immigration and Deportation: CID)에 고용 허가서 발급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마. 사회 보장 제도

1854년 6월 18일 발효된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Law; RA 1161) Sec.9에 의거 60세 이하의 모든 피고용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동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동 법 Sec. 8.(C) Employee 규정에서 정부 및 정부 기관 등은 동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대신 이들은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Act(GSIA)의 대상이 된다.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마지막 날에 동 법에 의한 Social Security System(SSS)에의 가입 의무가 중단되었다. SSS에 의한 혜택은 월간 베이스로 부양 가족 연금, 퇴직금, 사망 보조금(Death Benefits), 장애자 보조금(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장례 보조금, 질병 보조금, 출산 보조금 등이 있다.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바. 해고

많은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일정한 절차(경고 3회 등)를 거쳐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해고는 금지되며 부당 해고사유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됨

노동법상의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의 중대한 잘못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 습관적인 근무태만과 의무의 기만행위
- 부정 행위 및 고용주에 대한 기만 행위
- 고용인 가족에 대한 폭행 행위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요

- 현재 적용되는 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CR)은 1997년 개정되었다.
-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특별소비세, 비례세, 인지세 등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 부가가치세는 건설 및 서비스 계약업자에 대한 서비스, 주식, 부동산, 세관 브로커 등에 대한 서비스, 부동산 임차료, 창고 서비스료, 요식업 서비스료, 전신 전화료, 은행 서비스료 등의 각종 서비스와 수입품(수입품은 수입 시 납부)을 포함한 각종 제품 판매 대금에 대해 12%가 적용되었다.
- 그러나 식품용이 아닌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일반 소비용 가축, 비료, 종자, 동물용 사료 등의 수입품, 천연가스나 석탄 및 그 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 엔진과 부품을 포함하여 5,000톤 이상의 여객선이나 화물선 수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2006년 2월 1일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조세 수입 확대를 위한 국가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기존의 10%에서 12%로 인상하였다. 이는 국가 재정회복 프로그램(Fiscal Recovery Program)에 따른 것으로 2%의 부가세 인상으로 연간 미화 15억 달러 상당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 내,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소득 1만 페소 이하: 5%
- 1만 초과 3만 페소 이하: 500페소 + 1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10%
- 3만 초과 7만 페소 이하: 2,500페소 + 3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15%
- 7만 초과 14만 페소 이하: 8,500페소 + 7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20%
- 14만 초과 25만 페소 이하: 22,500페소 + 14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25%
- 25만 초과 50만 페소 이하: 50,000페소 + 25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30%
- 50만 페소 초과: 125,000페소 + 50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32%

라. 법인세 (Tax on Corporations)

2009년 1월부터 필리핀 내 모든 법인(외국법인, 내국법인, 거주, 비거주)에 대하여 법인세 30%가 적용되고 있다.

마. 양도세(Transfer Taxes)

- 부동산세(Estate Tax), 증여세(Donor's Tax) 등.

바. 특별소비세(Excise Taxes)

- 주류, 담배, 석유제품, 기타 화장품이나 향수, 요트 및 자동차에 대해 적용된다.
- 광산물도 석탄, 코크스 등은 채굴 톤당 10페소에 연간 총 생산량의 실제 시장 가격에 대해 2% 과세. 금, 크롬은 2%, 구리 및 기타 금속 광물은 2% 이하 등 적용된다.
- 자동차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15%, 35%, 50%, 100%로 차등 적용된다.
-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이 2004년 말 인상되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개황

필리핀은 1993년 4월 13일 외환자유화가 단행(Circular No.1389)되어 특정 산업에 속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민간인의 자유로운 외화 소지 및 송금이 가능하며 기업들도 수출 대금을 100% 보유할 수 있다.

필리핀의 외환 보유고는 2009년 7월 현재 400억 달러를 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1,000만 여명에 이르는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연간 164억

달러('08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09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사한 금액을 국내로 송금할 것으로 전망되어 환율의 안정적 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외환관리 및 국내소비와 건설경기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나. 외환 통제

외환자유화가 단행되었지만 필리핀으로 외환유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국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BOI)이 정한 일반 가이드 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 업은 중앙은행 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의 철수, 투자의 회수, 현금 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 역할을 한다.

외국인 투자는 투자 시점에서의 환율로 환산하여 현지 화폐로 계산되는데, 현금 투자 및 현물 투자도 가능하다. 현물 투자의 경우 중앙은행 Circular 1318에 표기된 상품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 외국 자본 및 기술에 대한 규제

1) 자본

모든 외국인 투자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대부금

외국 자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면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외국 자본 차입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중앙은행은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 외국 자본 차입 신청서는 중앙은행이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다.

모든 사기업, 주식회사, 금융 기관, 정부 기관은 외국 자본 차입 현황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현지에서의 외국인 기업의 차입 행위는 다음과 같이 자유화 및 단순화되어 있다.

- 서로 상이한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사전 행정 처리는 폐지
- 구비 서류 간소화
- 외국 기업에 대한 빈번한 보고서 제출 요구는 분기 혹은 반기 1회로 변경

3) 기술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은 호텔 경영 계약을 제외하고는 상공부의 특허, 등록상표, 기술 이전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기술이전 등기소(Technology Transfer Registr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copyright licenses는 국립 도서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예금 계좌

법인은 증권거래 위원회(SEC) 또는 무역산업부(DTI)에 등록을 해야 계좌를 개설이 가능하며 개인은 Alien Certificate Registration을 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 관련 계약이나 외국인 투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로열티, 임대료, 수수료, 배당금, 이익금, 기타 다른 무형의 지불금 등이 거래 중지 계좌로 간주된다.

5) 자본금, 배당금, 이자의 본국 송금

외국인 투자는 중앙은행 혹은 투자가가 정식으로 지정한 보관 은행에 등록되지 않으면 본국 송금이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규정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분할 송환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했다. 1992년 9월 1일부로 중앙은행은 사전승인 없이 중앙은행 투자등록증(DBRD)의 제출만으로 투자 자본의 본국 송환 및 배당금, 이자의 송금이 가능하다.

중앙은행 Circular 1353에 의해 중앙은행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던 1973년 3월 15일 이전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인된 은행을 통하여 자본금의 본국 송환이나 투자에 따른 배당금 송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 대부금과 이자

- 외환 대부금이 금융권으로부터 구입한 외국환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외환 대부금으로부터의 수익금이 공인된 은행에 매각되어야만 한다. 외국환 대부금과 관련된 지불은 중앙은행 Circular 1277의 규제를 받으며, 이에는 대부금 성질의 일부를 차지하는 계약이나 계획에 대한 지불금도 포함된다.

○ 로열티와 서비스 수수료

- 로열티 및 임대 계약은 일반적으로 자동 갱신 조항이 없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 일정한 조건하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할 수도 있음), 제한적인 비즈니스 조항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 계약문구의 해석은 필리핀 국내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필리핀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성능과 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저가품을 위주로 구매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고급 쇼핑몰에서 구매하는데 아시아 최대 쇼핑몰을 비롯,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중소도시까지 쇼핑몰이 넘쳐날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제조업이 부재하다시피 해서 소비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위주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나. 한국 상품 인지도

약간 지났지만 지난 2006년 12월 필리핀 상업 도시인 마카티(Makati)에서 한국 상품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상류층 소비자들에게는 낮게 평가되었으며, 중산층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아직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높은 가격대 분포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가전제품 회사에서의 꾸준한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한국 업체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V와 기타 가정용 가전 제품으로는 일본과 미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핸드폰의 경우에는 노키아와 모토로라, 삼성, 소니 에릭슨 등의 순이었다.

다. 유망 상품

1) 자동차

□ 품목명: 이노마 지(Innova G)



모델명	이노마 지(Innova G)
선정사유	2006년 최다 판매 다목적 승합차
가격대	US\$18,600 ~ US\$20,900
브랜드	상
기능	가솔린 엔진(2.0), 자동변속
선호계층	중상류층
원산지	필리핀
유통구조	판매(딜러)

□ 히트 요인

토요타는 필리핀 소비자들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의 입지에 있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나타났다. 현지 시장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요타 이노마(Innova)는 비오스(Vios)와 같이 2005년에 출시되었으며, 지난해 2006년에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다.

Innova G는 7인이 승차 가능한 가족형 밴으로서 대가족 사회인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차라고 인식되고 있다.

기본 차량 규격은 4,555 * 1,770 * 1,755 mm(길이*폭*높이)으로 가족형 밴으로 알맞은 크기이며 승차감이 뛰어나다. 이노마 지는 2.0과 2.5 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자동 변속과 수동 변속이 있다. 차량의 색상은 총 6가지이며,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는 색상으로는 은색과 초록색이 있다.

2) 음료

□ 품목명: C2 녹차



모델명	Ready-to-Drink Green Tea, 350ml ~ 500ml
선정사유	2006년 최다 판매 음료
가격대	US\$0.23 to 0.30
브랜드	중
기능	녹차 잎을 우려 만든 혼합음료
선호계층	15 ~ 50 세, 대중
원산지	필리핀
유통구조	도매, 딜러, 소매

□ 히트 요인

녹차 잎을 우려 만든 혼합 음료로서 필리핀 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06년 최다 판매 음료로 코카콜라社의 콜라의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었다.

녹차는 오랫동안 건강을 위한 음료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필리핀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C2 녹차의 제조사인 Universal Robina Corporation는 미화 5억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반면 2003년 필리핀 코카콜라社의 판매액은 미화 5.53억 달러로서 제품출시 1년 만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C2 녹차는 현재 4가지 맛의 제품(딸기, 키위, Lychee, Forest Fruits)을 생산하고 있다.

3) 커피숍

□ 품목명: 스타벅스



모델명	커피숍
선정사유	인지도가 높은 커피숍
가격대	음식 (US\$1.86~US\$2.75) 음료 (US\$1.47~US\$3.42) 기념품 (US\$5.39~US\$328)
브랜드	상
기능	스타벅스 로고
선호계층	18 ~ 42세
원산지	미국
유통구조	대리점

□ 히트 요인

필리핀 전 지역에 걸쳐 105개의 대리점이 있는 커피 전문점으로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 경영의 영향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은 스타벅스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거나 판단을 하고 있다.

주요 고객들은 학생과 비즈니스맨으로, 평일에는 학업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곳에 서 토론하며, 금요일과 주말에는 만남의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의 대중화를 위하여 일반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4)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 품목명: iPod Nano



모델명	아이팟 나노
선정사유	아이팟에 이어 출시된 제품으로 최다 판매 제품
가격대	US\$180 ~ US\$304
브랜드	상
기능	최대 8GB 메모리, 24시간 연속 사용, 6가지 색상
선호계층	16 ~ 38세
원산지	미국
유통구조	허가된 딜러

□ 히트 요인

2006년 전반기에 애플사의 iPod이 북미 지역의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의 76%를 차지하였고, 미국 시장의 유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필리핀 역시 iPod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시장에서는 iPod 시리즈(iPod, iPod Nano, iPod Video, iPod Shuffle)중에서 iPod Nano가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받았다.

iPod Nano는 슬림(slim) 디자인이고 2000개의 노래를 저장할 수 있다. 색상은 총 6가지로써 은색, 하얀색, 검정, 핑크, 녹색, 회색이 있다. 검정색과 하얀색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검정색 제품의 경우 8G 메모리 제품만이 출시되고 있다.

iPod 제품은 현지 중상류층 간에게 최고의 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프로모(Promo) 경품으로 내놓고 있다.

5) 신발

□ 품목명: Havaianas Rubber Sandals



모델명	Brasil
선정사유	가장 선호하고 있는 신발 브랜드
가격대	US\$12.00 ~ US\$14.00
브랜드	상
기능	편의성과 디자인
선호계층	18 ~ 32세
원산지	Brazil
유통구조	신발 판매점 및 대리점

□ 히트 요인

Flip-flops로 알려진 샌들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다시 좋은 호응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불편한 하이힐을 자주 신는 직장 여성들이 사무실에서 편하고 활동이 자유로운 샌들을 선호하고 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어필되고 있는 샌들에는 Brazilian Havaianas 샌들이다. 이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호응을 받게 된 이유로는 편의성과 디자인이다. 가격은 다른 샌들 제품보다 10배가 비싸지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 여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High-Look 스타일로서 약 6cm의 굽이 있는 샌들이다. 색상은 총 8가지이며, 이 중 금색과 은색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남성 소비자들의 경우, Surf용 샌들을 선호하고 있다. 남성용 샌들은 단순한 디자인과 옐로우 색상이 있다.

6) 휴대폰

□ 품목명: 노키아 (Nokia) N70



모델명	Nokia N70
선정사유	노키아 N 시리즈 중 최다 판매
가격대	US\$390.00
브랜드	상
기능	3G, MP4, 디지털 카메라
선호계층	26~38세, 비즈니스맨
원산지	핀란드
유통구조	딜러, 판매 대리점

□ 히트 요인

노키아(Nokia) 휴대폰은 현지 휴대폰 시장에서 90%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현지 소비자들이 노키아 휴대폰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사용자 편의성과 훌륭한 디자인, 그리고 우수한 성능 등이 있다.

노키아 휴대폰 중 N70과 그 후속 모델인 N73이 2006년 한 해 동안 최다 판매를 기록하였다. 이 모델들은 훌륭한 디자인과 성능들을 가지고 있다.

N 시리즈는 하이 앤드 제품으로서 3G, MP4, 3.2백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N73의 대기 시간은 350시간이며 통화 시간은 5시간이다. N70은 대기 시간 265시간, 통화 시간 3시간 30분이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휴대전화 3대 통신사(Globe, Smart, Sun)는 지원되는 휴대전화 모델을 각기 선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N 시리즈의 제품은 통신사의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7) 게임

□ 품목명: Defense of the Ancients (DotA)



모델명	Ver. 6.276
선정사유	현지에서 가장 폭넓게 알려져 있는 게임
가격대	인터넷 카페 (US\$0.40 to US\$1.20)
브랜드	중
기능	온라인 or LAN 플레이
선호계층	13 ~ 27세의 남성
원산지	미국
유통구조	Publisher Asia Media Development Group

□ 히트 요인

한국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Ragnarok)가 현지 시장에서의 성공 이후 많은 게임들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2006년 한 해 동안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들인 Defense of the Ancients (DotA)와 ALL-STARS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도타(DotA)라고 알려진 Defense of the Ancients는 게이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임으로서 현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 플레이어들이다.

현지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게임의 요소로는 그래픽의 완성도와 빠른 접속 및 반응 속도로 대다수의 게이머는 자택에서 아닌 인터넷 카페에서 플레이하고 있다.

2. 물가정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대의 매우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09년 9월 하순 및 10월 초 42년만의 대형대풍과 홍수로 생필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요인이 매우 커지고 있어 '10년 초부터 상당한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S\$1 = Php46 -2009년 말 기준)

구분	항목	가격(Php)
식품류	쌀 1kg	46
	계란 12개	45
	쇠고기 등심 1kg	361
	돼지고기 등심 1kg	236
	우유 500ml	52
	식용유 1L	167
	생수 1L	27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42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90
	김치찌개 1인분	25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24,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5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면제)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800,000
	무연휘발유 1L	40
	자동차 등록비	5,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1년)	20,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3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2
	시내버스 기본요금	11
	택시 기본요금	3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12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6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2,000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15,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0,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92,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92,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15,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68,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32,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2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8,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3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30일
	연간 국경일수	13일
	주5일 근무 여부	0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360

3.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

- 농산물 협회
 - Central Luzon Egg Producers Association
 - Federation of Cattle Raiser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National Federation of Producers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Association of Hog Raisers, Inc
 - United Broilers Raisers Association
- 자동차 부품 협회
 - Association of Consolidated Automotive Parts Producers, Inc
 -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
 - Motor Vehicles Part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s Association of Battery Manufactures
 - Philippines Automotive Federation
 - Tir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화학 및 화학 제품 협회
 - Chamber of Cosmetic Industry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s Oleo-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Samahan sa Pilipinas ng mga Industriyang Kemika
- 건축 협회
 - Ce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Chamber of Real Estate and Builders Associations
 - Philippines Constructors Association
- 패션 액세서리 협회
 - Association of Accessory Manufacturers and Exporters of the Philippines
 - Association of Philippines Leather goods Exporters and Manufacturers
 - Meycauayan Jewelry Industry Association
 - Philippines Jewelry Business Club Foundation
 - Tanner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프랜차이즈 협회
 - Association of Filipino Franchisers
 - Philippines Franchise Association
- 가공 식품
 - Association of Coconut Brokers
 - Association of Philippines Coconut Desiccators
 - Beverage Industr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Chamber of Flour Millers
 - Coconut Refiners Association

- Fresh Frozen Seafood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Integrated Food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Organic Producers Trade Associations
 - Philippine Association of Flour Millers, Inc
 - Philippine Association of Meat Processors, Inc
 - Philippine Coconut Oil Producers Association, Inc
 - Philippine Food Processors and Exporters Organization, Inc
 - Philippine Sugar Millers Association, Inc
 - Seaweed Industr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United Coconut Associations of the Philippines, Inc
- 가구
- Albay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 Cebu Furniture Industries Foundation, Inc
 - Chamber of Furniture Industries of the Philippines – Negros Occidental Chapter
 - Chamber of Furniture Industries of the Philippines – Pampanga Chapter
 - Chamber of Furniture Industries of the Philippines – Vigan Chapter
 - Iloilo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 의류, 원단 및 유사 제품
- Confederation of Garment Exporters of the Philippines
 - Garment Busines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Home Textile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Textile Mill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선물, 장난감 및 가정용 그릇
- Christmas Décor Produc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Cube Gifts, Toys and Houseware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Inc
 - GTH –Bulacan
 - Home Accents Group of the Phils., Inc
 - Philippine Chamber of Handicraft Industry, Inc
 - Pottery Exporter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 Wooden Gifts and Accessories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 호텔과 식당
- Hotel and Restaura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정보 기술, 전자 제품과 서비스
- Computer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Deal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Electronics Industr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Federation of Electrical & Electronics Suppliers & Manufacturers of the Phils. Inc
 - Integrated Telecommunications Suppl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Appliance Industries Federation
 - Philippine Association of Electrical Industries, Inc
 - Philippine Electric Wires Manufacturers Association
 - Philippin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Federation
 - Semiconductor Electronics Industry in the Philippines, Inc

- 금속 제품
 - Agricultural Machinery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Association Foundation, Inc
 - Metalworking Industr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Manila Chapter
 - Philippine Die and Mold Association, Inc
 - Philippine Iron and Steel Traders Association
 - Philippine Metalcasting Association, Inc
 - Philippine Nail Manufacturers Association
 - Philippine Steelmakers Association
 - Pipes and Tube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Incorporated
 - Tin Can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비금속 제품
 - Glas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Rubber Industr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기타
 - Association of Firearms and Ammunition Dealers of the Philippines
 - 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 Foreign Buy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Association of Feed Millers, Inc
 - 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Inc
 - Philippin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 Philippine Product Safety and Quality Foundation, Inc
 - Philippine Tropical Fish Exporter's Association
- 포장
 - Packaging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 종이 제품
 - Association of Paper Traders of the Philippines
 - Pulp and Paper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 석유
 - Association of Petrochemicals Manufacturing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Liquefied Petroleum Ga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Petroleum Sea Transport Association
- 의약품
 - Pharmaceutical and Healthcare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원자재 의존 제품
 -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 Federation of Cutflowers and Ornamental Plant Growers of the Philippines, Inc
 - Philippine Wood Producers Association

- 소매
 - Direct Selling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s Amalgamated Supermarkets Association
 - Philippine Association of Supermarkets, Inc
 - Philippine Retailers Association
- 서비스
 - Advertising Board of the Philippines, Inc
 - Cold Chain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Confederation of Truck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Contact Center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Medical Transcription Industr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
 - Philippine Association of Convention/Exhibition Organizers and Suppliers
 - Philippine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Inc
 - Philippine Liver Shipping Association
 - Printing Industr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rod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Screenprinting and Imaging Graphic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SPA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나. 기타 방법

필리핀 전화국(Philippines Long Distance Telecom; PLDT)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 책자 (Yellow book)를 통해 알 수 있다.

다. 각종 홈페이지

각종 검색 엔진 및 회사 홈페이지에 필리핀 바이어에 대한 카테고리가 없으나 검색어를 (관심 분야 및 제품)+import+philippines로 입력할 시 쉽게 찾을 수 있다.

라. DB 활동 등 온라인, 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 온라인
 - 최근 B2B 웹사이트를 통해 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필리핀 바이어가 등록되어 있는 웹사이트로는 알리바바(www.alibaba.com)로 400 여명의 바이어와 셀러가 각각 등록되어 있다.
 -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제공하는 CITEM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Exposition and Missions; www.citem.com.ph)을 통해 바이어를 확인 할 수 있다.
- 오프라인
 -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및 한인 경제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바이어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마. 비즈니스 에티켓

1) 복장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 넥타이를 갖추면 정장으로 간주된다. 더운 나라여서 상의는 입지 않아도 무방하나 건물 내에서는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므로 상담장소에서 종일 상담하는 경우 상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전통의상인 바롱(Barong)을 입고 상담에 응한다면 편안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다.

2) 인사

영어 인사도 괜찮지만,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따갈로그(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단한 인사 정도를 익히면 무난하다.

필리핀 기본 회화

영어	따갈로그	발음
Good Morning	Magandang Umaga	마간당 우마가
Good Afternoon	Magandang Hapon	마간당 하폰
Good Evening	Magandang Gabi	마간당 가비
How are you?	Kumusta po kayo?	꾸무스타 뽀 까요?
I am fine	Mabuti po	마부띠 뽀
Thank you	Salamat po	살라맛 뽀

상담자의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상담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

3) 선물

두터운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은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저렴한 한국의 전통차 혹은 기념품 등을 선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 인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다.

대체적으로 현지 회사 사장 및 주요 간부들에게는 비서가 있으므로 사전 이들과 상의해서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문화적 금기 사항

카톨릭 국가로서 특별히 터부시되는 사항은 없으나, 언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들이 다소 급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언성을 높일 만한 사안에 대해 화를 내는 등의 당연한 듯한 반응에도 현지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일로 받아들인다.

또한 손가락이나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욕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직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 석상에서 야단을 치면 모욕을 받는다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불러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므로 종업원이든 누구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인 방문객들이 현지인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적으로 대하는 사건들이 현지 언론에도 계속 보도된 바 있어 현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유흥가에서 마치 한국에서처럼 과격하게 행동하면 신변에 위협을 느낀 상대방이나 경비원들이 권총을 발사할 수도 있고 현지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스려지게 되므로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무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남부 민다나오 섬의 회교권에서는 회교 율법에 의한 금기 사항이 있으나 다른 지역은 특별히 터부시되는 사항은 없다.

다.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필리핀의 수입은 대략 50% 정도가 대리점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에이전트나 유통업체들은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독점권은 해당 상품이 필리핀에 진출하는 창구를 하나로 독점한다는 의미이며 대리점이 해당 브랜드의 상품만을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통상 대리점은 수 가지의 상품 또는 경쟁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

유통업체들은 재고의 보유를 극히 꺼려 소량 반복 구매를 하므로 신속한 배송이 중요하다. 가구나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구점이나 사무용기기 판매점을 접촉해 보면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재고가 있더라도 곧바로 예약금을 내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되어 새로 수입품이나 제작품이 들어올 때까지 두 세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4월(부활절), 12월(크리스마스, 연말 모임)에는 수입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 결정권을 지닌 기업주들이 해외 휴가를 즐기기 때문에 상담이 어렵다. 중화학공업 제품이나 산업용 제품 등의 경우 수입상들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를 희망하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보다 주요한 구매 조건이 된다. 화교계 상인들은 해외 거래선 구축 시 중국, 대만, 홍콩 등 중국계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표면적으로 무역 거래상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나, 간혹 세관에서 기존에 거래가 없던 신규로 들어오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높은 관세로 측정하고 있다. 사전에 관련 법규 및 관세율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40%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방 은행, 대중 매체, 전문 직종에서의 직업 행위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외국 자본의 참여나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 영역에 있어 100% 외국 자본 투자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네거티브 리스트 C에 포함되더라도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게 되면 100% 외국인 투자 가능. 세부적인 투자 제한 내용은 국가 정보 내 '투자' 항목(V) 내 '4. 주요 투자법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필리핀은 제조업이 극히 취약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사례도 그리 많지 않음. 따라서 진출성공 실패사례를 거론하기는 곤란하며 거래와 관련된 몇 가지 참고할만한 사례도 대체함

가. 현지 업체의 대금 결제 미지급 사례

최근 국내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바이어가 제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내 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동 거래의 대금 결제 조건은 L/C 50% 및 현금 결제 50%이고, L/C 대금은 현지 도착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는 조건이었으나, 현지 업체가 물품 인수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대금 지불을 지연시키며 결제를 거부하였다.

현지업체 주장은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인데, 거래 초기에 국내업체가 제시한 샘플과 비교한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었고, 국내업체는 바이어가 요구한 사양을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에 제품 상태가 불량하다면, 바이어가 제시한 사양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지업체가 지속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어 버림에 따라 동 분쟁은 국내 업체가 손실 전부를 감수하고 종료되었다.

현지 업체가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대화를 중단할 경우 국내 업체나 우리 센터가 바이어를 접촉하여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현지 치안이 불안정해 사무실 및 주택 입구에 경비원이 상주하며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고, 방문자는 입구에서 면담자의 허락/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업체가 현지 업체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며 몰아부침에 따라, 전화 및 핸드폰 수신을 거부하고, 국내 업체의 업체 방문도 거절하여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례이다.

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미 숙지 사례

현지 업체가 무선 인터넷 다운로드가 가능한 핸드폰 단말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에 요구한 구매 희망 제품 사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초기부터 요구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다운로드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고, 제품에 불만을 느낀 현지 업체가 제품 전량 회수 및 선금금 환불을 요구한 사례이다.

국내 업체는 부가적인 연결 장치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를 구현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하다며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현지 업체가 요구한 사양에 맞춰 별도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판매도 불가능하므로 제품 회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핸드폰 단말기를 수출한 국내 업체가 무역 업체로서, 제품의 특성을 세세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거래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사례로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현지 업체가 한국 업체와 더 이상의 거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 사례이다.

다. 현지 독점권에 대한 이해부족 사례

현지 업체에 냉온수기를 수출한 국내 업체가 현지 업체에 조건부 독점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독점권 제한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현지 업체가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빌미로 지속적인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내업체의 현지 진출이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수년 전 국내의 대표적인 냉온수기 업체가 자사 브랜드 사용 권한을 현지 업체에 부여하면서 취급 가능 제품 모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독점권 취소에 대한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국내 업체의 내부 여건상 자회사 성격의 협력 업체에 브랜드 사용 권한을 제공하면서, 취급력 업체와 취급 모델을 분리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현지 업체와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래 규모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거래 종단을 통보하였다.

최근 브랜드의 원소유권이 있는 업체의 협력 업체가 현지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현지 업체가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동 국내업체의 현지 진출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국내 업체는 모 기업의 브랜드 보유업체에 확인한 결과, 현지 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중단됨에 따라 독점권 사용 권한도 함께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현지 업체는 독점권 사용권 중단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으로 통보 받은 바 없고, 현지 업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선 통보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수년째 해당 브랜드를 바탕으로 영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진출하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내 업체가 진출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일단락 되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현지 업체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향후 거래선 전환 및 진출 전략 재설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제한 조건 및 독점권 회수 절차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 사례이다.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주택임차

- 주택임차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찾아 가격, 위치 및 방의 수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면 중개업체는 자사가 보유한 매물에 대한 소개와 방문 등 임차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한다.
-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적으며 이로 인해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체결방식을 선호한다.
-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직접계약 방식은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호하지 않으며 임차료의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임대인을 만나거나 해외여행 등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애로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계약할 때는 수리 등의 문제, 퇴거 시 원상 복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 전에 모든 부분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하자 등에 대한 문서확인을 해 두는 것도 바람직함)
- 임차료 납부방식은 1년 선불이 원칙이며 2개월 분의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내게 된다. 따라서 총 14개월 분의 임차료를 입주시점에 납부하게 된다.

나. 은행계좌 개설

- 달러화 및 현지화 계좌 모두 필요하므로 2개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며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점이 많은 대형은행(UNIVERSAL BANK 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준비물은 여권과 소형사진 1매(은행 지정양식 부착용)이면 되며 계좌개설은 임차료 등 고액 경비나 공과금, 현지 직원 급여 등을 회사 수표나 개인 수표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하며 Crossed Check의 경우 도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 인출은 현금자동인출기(ATM)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편리하다.

다. 전화 신청

-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전화선을 사용하므로 별도 전화 번호 신청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예외적으로 신규 전화개설은 기간통신업체인 PLDT (Philippines Long Distance Telephone)에 하게 되나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Globe Telecom 등 타 Land Line Telephone 전화를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단시간에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 비품 구입

- 임차대상 주택의 유형에 따라 비품구비가 상이하므로 자신이 소유한 비품을 감안하여 주택임차 시 Furnished 여부를 체크하여 임차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은 단독 주택의 경우 Unfurnished가, 아파트(콘도미니엄으로 통칭)의 경우 Semi-Furnished가 일반적이다.
- 가구나 비품을 살 경우 대부분 제품이 수입품이어서 매우 비싸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상관행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가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로 계절은 건기(11~4월/루손 섬 기준,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와 우기로 나누어진다. 연평균 강우량은 2,030mm, 연평균 기온은 25도(24~31도), 습도 70~85%의 기후 특성을 보인다.

2) 풍토병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말라리아(Palawan 섬), 뎅기열병, H-Fever, 해산물 특히 조개류에 의해 감염되며 치사율이 높은 레드 타이드(Red Tide) 등이 있다.

3) 주요 지역의 기후

지역별 연평균 기온(섭씨 기준)

구분	필리핀 평균	루손섬	비사야	민다나오
최고 기온	33.0	33.0	33.3	33.7
최저 기온	21.3	21.0	21.6	21.1

지역별 강수량(mm) 및 강우일

구분	필리핀	루손섬	비사야	민다나오
총 강수량	36,284	11,823	12,454	12,007
총 강우일	137	147	132	132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 - 1시간'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다.

2) 근무 시간

- 정부 및 민간기업을 망라한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8:00-17:00 이다.
- 은행은 09:00-17:00까지 근무하나 실제 고객이 이용 가능한 시간은 15:00까지이며 달러화 인출은 14:00에 종료된다.
- 일반 상점은 10:00-20:00까지 영업한다.
- 관공서, 은행, 국영 기업체 및 사무실 등은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공장은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적인 전력부족으로 2005년 4~5월 두 달간 공무원(민원부서 일부 제외)은 월-목까지 주4일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 점심 시간은 12:00-13:00까지이며, 15:00~16:00까지는 간식시간(미리엔다 타임)이 있다.
-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이 문을 열지 않는 날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우기의 집중 호우 때는 관공서, 사무실 등이 일찍 문을 닫고 직원들을 조기 귀가 시키기도 하는데 과도한 폭우가 아닌 경우에도 관공서가 문을 일찍 닫는 경우가 자주 있다. 메트로 마닐라(수도권) 일대에 저지대(특히 마닐라 지역)가 많고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퇴근길 교통마비가 잦기 때문이다.

다. 주요 단위

	단 위	비 고
거리	Kilometer(Km)	Mile도 혼용하고 있음
무게	Kg	일부 사람들은 파운드(lb) 사용
길이	Inch	
전기 규격	220V/110V 겸용(60Hz)	*플러그 모양이 다르므로 휴대 혹은 현지 구입 필요
온도	섭씨(°C)	
면적	Square meter(㎡)	

라. 출입국 비자

1) 비자

방문 기간 21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출국용 항공권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은 출입국 사무국(이민국)에 21일이 경과하기 전에 여권과 함께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6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에는 Temporary Visitors Visa(59일 이하),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59일 이상) 등이 있음. 체류 예정 기한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더라도 이민국 통과 시 ‘21일’ 스탬프를 찍어줄 수 있으므로 이민국 통과 시 스탬프를 찍어 주면 그 자리에서 59일짜리인지 확인하고, 만약 21일짜리로 되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59일짜리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았더라도 입국 시 이민국에서 21일짜리로 여권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자 기한은 이민국 고유 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때도 정중하게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민국 통과 시 이민국 직원에 대한 무례한 언행이나 그 무례한 언행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로 인해 강제출국 당한 사례가 있다.

비자 종류별 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gov.ph/faqs/visa.asp> 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2) 비자 발급처

- 주한 필리핀 대사관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dd: 34-44 Itaewon-1 dong, Yongsan-Ku, Seoul, Republic of Korea
 - Tel:02)796-7387~9
 - Fax:02)796-0827
 - Ambassador: Susan O. Castrence
 - 근무 시간: 09:00-12:00 & 12:30-17:30(토요일 휴무)

- 필리핀 출입국 사무국 / Bureau of Immigration & Deportation
 - Add: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Tel: 527-3265 / 527-5371
 - 근무 시간: 오전 8:00 - 정오 12:00, 오후 1:00 - 오후 5:00

3) 출입국 절차

□ 입국

입국 시에는 기내를 나서서 입국 심사대를 거쳐 수화물을 찾고 세관 심사를 마친 후 공항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

입국심사 시는 외국인 전용 라인을 이용해야 하며 입국 신고서와 함께 여권,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21일 이하 체류 관광객의 경우는 출국용 항공권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세관심사는 세관신고서(대개 기내에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1-2개의 손가방만 휴대한 경우는 블루라인(Nothing to declare)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참고: 1인당 담배 2보루, 주류 2병은 면세). 블루라인을 통할 경우라도 세관원이 가방을 열어보라는 등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비즈니스 출장으로 샘플이 과다할 경우 관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카톤박스에 샘플을 담아오는 경우 개봉 요구 가능성이 많음), 목적, 용도 등을 자세히 조리있게 설명하면 대개는 그냥 통과된다.

전시품의 경우라도 보세 통관이 허용되지 않음. 세금을 납부하고 입국했더라도 출국 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세관 심사 후 출입문 입구에서 공항 직원이 수화물 번호와 해당 수화물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수화물 번호표를 회수하므로 반드시 수화물표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반복적인 확인으로 불쾌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내 짐을 남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 생각하면 합당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수화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공항 당국에 입국편, 수화물 내용, 수령할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고 담당 직원 성명,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입국해야 한다.

환영객은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Terminal 2(필리핀 항공 전용 공할)에서는 공항 건물을 빠져 나오면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으며, 공항 내 택시 서비스 티켓 발급소에서 승차권을 구입(거리 정액제)하여 택시 탑승이 가능하다

Terminal 1(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외국 항공 전부)에서는 공항 건물을 빠져 나오면 바로 건너편에 택시 회사 부스들이 있어 이곳에서 택시를 타면 되며, 환영객이 있는 경우 Waiting Area(A to Z)로 걸어 내려가야 만날 수 있다. 현지 여행사에서 마중 나오는 경우에도 이곳까지 내려와야 한다.

환영객이나 여행사를 만나지 못한 경우 이곳에서 공중전화 카드를 구입,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 현지인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는 경우 실제 통화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므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휴대전화로는 발신이 안 되는 공중전화도 많으나 공항 내에는 발신 가능한 전화기가 있다.

□ 출국

항공권이 없으면 공항 내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탑승 수속 시 환승객은 동행하지 못하며 공항건물 진입 시 여권과 함께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수화물의 X-RAY 투시기 통과 및 탑승객의 금속 탐지기 통과 후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발송하고 항공기 탑승권(보딩 패스)을 수령한 후 출국 심사장으로 진입하며 출국 심사 전 1인당 790페소 공항 이용료를 납부한 후 출입국 심사대로 간다.

출국 심사대에 출국 신고 서와 함께 여권, 탑승권, 공항 이용료 영수증을 제시한다. (59일 이상 체류한 여행자는 별도로 ECC 1,010페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국 심사를 마치면 면세 구역 내로 진입하게 되며 이곳에서 탑승권에 명기되어 있는 탑승구 번호를 확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마. 환율/환전

1) 통화 단위

- 통화 단위는 페소(PESO)로서 약칭은 P이며 1페소는 100센타보이다.

2) 종류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폐로는 1,000 페소, 500 페소, 200 페소, 100 페소, 50 페소, 20 페소가 있으며 동전은 10 페소, 5 페소, 2 페소, 1 페소, 50 센타보, 25 센타보, 10 센타보, 5 센타보, 1 센타보가 있다.

3) 환전 요령/장소

- 호텔, 은행(여권 지참), 환전상이 산재해 있으며, 각각 환율이 다른 데 시중 사설 환전소의 환전율이 제일 높다. 환전소가 곳곳에 있는 이유는 해외 파견 근로자(OFW) 들의 달러화 송금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가족, 친척들이 수시로 환전을 하기 때문이다.
- 최근 들어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환전소 이용객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바 환전소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환전 시 화폐를 순식간에 바꿔 치기 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카운터에서 즉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장자나 여행객 입장에서는 환전 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가급적 은행이나 호텔에서 환전하도록 권장한다. 시간대별로는 주로 목요일 중의 환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특히 주말이나 은행 근무 시간이 끝난 오후의 환율은 낮은 편이다.

4) 신용카드 사용

- AMERICAN EXPRESS 제휴사의 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VISA 카드가 보편되고 있다.

5) 소매치기 주의

-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아 환전 및 신용카드 사용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

바. 교통/통신

1) 한국-필리핀 직항편

비행기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가량 소요되며, 항공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인천 -> 마닐라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01	777	09:00	12:10	✈	✈	✈	✈	✈	✈	✈
OZ7013	767	19:50	22:55						✈	
OZ7013	767	19:35	10:40		✈			✈	✈	

클라크 -> 인천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085	321	01:00	06:00	✈		✈	✈		✈	✈

인천 -> 클라크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075	321	20:45			✈	✈		✈	✈	✈

마닐라 -> 부산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063	320	03:05	07:50					✈		
OZ706	320	04:05	08:50	✈						

부산 -> 마닐라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05	320	21:15	23:55							✈
OZ7053	320	21:15	23:55				✈			

인천 -> 세부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093	321	20:20	23:50			✈	✈		✈	✈

세부 -> 인천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103	321	00:50	06:20	✈			✈	✈		✈

□ 대한항공

마닐라 -> 인천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E622	777	12:10		✈	✈	✈	✈	✈	✈	✈
KE8624	747	23:30						✈		✈
KE8624	747	23:55		✈	✈	✈	✈			

인천 -> 마닐라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E621	777	08:00	10:50	✈	✈	✈	✈	✈	✈	✈
KE8623	747	19:25	22:05					✈		✈
KE8623	747	20:35	23:25	✈	✈	✈	✈			

□ 필리핀 항공

마닐라 -> 인천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PR468		14:30	19:20	✈	✈	✈	✈	✈	✈	✈

인천 -> 마닐라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PR469		20:20	23:30	✈	✈	✈	✈	✈	✈	✈

부산 -> 마닐라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PR417		19:45	22:45			✈	✈		✈	✈

□ 세부 퍼시픽 항공

부산 -> 마닐라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J194		15:05	20:05	✈	✈	✈	✈	✈		

인천 -> 마닐라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J195		21:20	00:20+1	✈	✈	✈	✈	✈		
세부 -> 인천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J128		15:35	21:15				✈			✈

인천 -> 세부										
편명	기종	출발시간	도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J129		22:25	04:10				✈			✈

2) 국내 교통

교통수단의 노후화, 더운 열대 기후, 대중교통 미발달로 외국인, 특히 비즈니스맨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은 택시 및 비행기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간 이동 시 내국인은 배를 주로 이용하며 안전이나 시간 면에서 외국인 및 상류층은 비행기를 이용한다.

장기 노선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역내 짧은 거리는 지프니(JEEPNEY)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지프니(Jeepney)는 냉방 시설이 없으며, 버스도 냉방 시설이 없는 것이 많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감안, 이용할 만한 교통 수단은 택시 및 에어컨 버스 정도이며 택시의 경우도 가능하면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는 호텔 벨보이에게 차량번호를 인지하도록 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택시

외국인 방문객이 택시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피하려면 입국 시 공항 건물 바깥에서 탑승 쿠폰을 구입하여 쿠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요금은 목적지에 따라 상이 하나 메트로 마닐라의 '마카티 시'까지의 요금은 500페소 정도이다.) 대다수의 택시 기사들은 잔돈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 교통수단별 요금

- 택시
 - 기본 요금 30.0페소 + 2.50페소/200미터
 - 택시 요금 계산시 미터기에 나온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지프니: 7.5 페소 (기본 3KM) + 0.50 또는 1페소 (추가KM당)
- 에어컨 버스 - 10페소/ZONE
- 버스 요금은 버스 회사 및 노선에 따라 다르다.
- 경전철(기본 요금): LRT - 12페소/ONE WAY, MRT - 9.5페소/ONE WAY

3) 국제 통신

시설의 낙후로 잘못 연결되거나 회선의 부족으로 '통화 중' 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잦았으나 최근에는 그런 현상은 찾아보기 힘든 정도가 되었으며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 이용에 별 무리가 없다.

우기에는 침수 등으로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전화번호를 올바르게 돌려도 "The Number you dialed is not yet in service" 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Sorry, the line is busy now"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한국과의 통화 방법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의 통화
 - 국가 번호 63--->지역 번호(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2)--->가입자 번호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통화 시에는 필리핀 국가 번호 63, 지역 번호(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2), 가입자 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른다.
 - 휴대전화로 걸 때는 국가 번호(63)→휴대 전화 사업자 번호(앞의 0을 빼고 916, 917, 919, 927 등)→가입자 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른다.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의 통화
 - 국제전화 접속 번호 00 ---> 국가 번호 82 ---> 지역 번호(서울일 경우 2) ---> 가입자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른다.
 - 단 국제전화는 국제 통화가 허용된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함.

- 시간대 별로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통화가 용이한 반면 근무 시간대 및 저녁 시간대에는 체증이 심하다.
- 필리핀 교환을 통한 국제전화 신청 시는 108을 다이얼링한다.
- 한국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통화(COLLECT CALL)
 - 10582(한국통신), 10587(데이콤 안내), 105087(데이콤 직통), 105823(온세통신) 등을 다이얼링한다.
 - 호텔에서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통화를 하려면 0번을 눌러 교환을 부른 다음 교환원에게 10582 또는 10587 등의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면 된다.

4) 국내 통신

공중전화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시내 거리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커머셜 센터 같은 공공 장소 등 매우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전화 사무소를 찾아 신청 후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카드 전화기는 공항 내 및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유선전화 보급률이 2004년 기준 100명당 7.8대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총 보급 회선은 647만 회선이나 전체 가입자는 344만 회선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화가 있는 이웃집을 통해 받는 경우도 많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는 3,500만여 명(필리핀 국가 통신위원회 자료)이며 선불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저가 보급형이 주류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필리핀 관광부는 176개 호텔, 60개 Inn, 11개 Apartel 및 113개의 리조트에 총 18,92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편이 저렴하다.

다만, 호텔 측에서 이따금 과도하게 예약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호텔에 투숙하려는 시점에서 객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성수기나 행사가 몰려 있어 수요자가 많은 경우에 여행사를 통해 예약 하려면 객실 확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특급 호텔

-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 19개 정도가 있으며 WALK-IN GUEST의 경우 보통 싱글 US\$ 135 - US\$ 250, 더블/트윈 US\$ 280 - US\$ 330 (서비스료와 세금 제외) 수준이다.

○ 1급 호텔

-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 16개 정도가 있으며 WALK-IN GUEST의 경우 싱글 US\$ 60 - US\$ 150, 더블/트윈 US\$ 70 - US\$ 160 (서비스료 및 세금 제외) 수준이다.

○ 기타

- 기타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는 70개의 STANDARD 호텔과 70개의 Economic호텔이 있으며 그밖에 장기 체류자를 위한 아파트 형태의 호텔인 아파텔 및 Pension 하우스 등이 있다.

그 외 현지 교민들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기거하는 경우 한국식 식사(아침, 저녁)와 의복 세탁까지 해주는 곳들이 있으므로 장기 투숙자는 이용할 만할 것이다. 하숙집은 현지 교민 신문들에 광고가 게재되며, 교민 신문들은 인근 한국 식당이나 한국 식품점들에서 입수할 수 있다. 교민잡지에는 현지 한국계 여행사 광고 등 각종 영업점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한인 운영 숙박 시설

업소명	전 화	소재지
서울 호텔	2)890-1830	Makati City
오가 호텔	2)890-2052	Makati City
코리아비즈니스 호텔	2)890-7793	Makati City

주: 요금은 1박 3식 세탁 포함 1인당 40~50달러 수준임.

주요 호텔 객실 요금(할인 전 정상 요금)

(단위: US\$)

호 텔 명	SINGLE ROOM	DOUBLE/TWIN	전화번호
Shangri-la Makati	197.39	228.04	813-8888
Inter-Continental	150	150	815-9711
Peninsula	116.14	141	810-3456
Mandarin Oriental	194.93	182.67	750-8888
New World Renaissance	120	120	811-6888
Shangri-la EDSA	158	184	633-8888
Diamond	110	110	528-3000
Westin Phil. Plaza	151	151	551-5555
Hyatt Regency	86	86	833-1234
Manila Hotel	101	101	527-0011
Dusit Hotel Nikko	125	125	867-3333
Trader's Hotel	159	183.13	523-7011
Manila Pavilion	89.76	89.76	526-1212

주 1: 상기 요금에 10%의 봉사료와 12%의 부가세가 추가된다.

주 2: 상담장 임차 시에는 가능한 2개월 이전에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2) 식당

□ 필리핀의 전통 음식

- 크리스피파타(Crispy Pata): 돼지족발 튀김 요리
- 카레카레(Kare-kare): 쇠꼬리 요리
- 아도보(Adobo):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식초에 버무려 삶은 요리
- 라뿌라뿌(Lapu-lapu): 필리핀의 대표적인 생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한다.
- 레촌(Lechon): 통돼지를 장작불에 돌려 구워서 기름을 뺀 것
- 포크 리엠뵈(Pork Liempo): 두껍게 썰어 팬에 구운 돼지 삼겹살 요리
- 알리망고: 검은 녹색을 띠고 있는 게. 대부분 삶아서 요리한다.
- 시니강: 야채와 돼지고기나 생선 등을 이용한, 시큼한 맛을 가진 국
- 칼라만시(Calamansi)주스: 레몬 비슷한 과일로 만든 신맛 주스. 비타민C가 풍부하다.

□ 메트로 마닐라의 식당

호텔이 몰려있는 메트로 마닐라 일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식당이 산재해 있다. 필리핀 식 전통 식당 이외에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및 유럽식 요리 등을 하는 식당들이 많다.

현지 교민지에 광고가 게재된 한국 식당 수는 마닐라 지역 23개, 마카티 29개, 파식과 만달루용 지역에 9개, 그린힐 1개, 케존 18개, 파라냐케/알라방 지역 11개, 파사이 6개, 수빅과 앙헬레스 3개, 라구나 1개, 보라카이 11개, 세부 16개, 다바오 3개, 바기오 3개 등 총 145 곳이며, 광고를 실지 않는 소규모 식당들도 있다. 광고를 게재한 식당들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만 해도 1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패스트푸드는 맥도널드, 웬디스, KFC 등 서구 브랜드도 있지만 '줄리비(Jollibee)'라는 필리핀 고유 브랜드가 사랑 받고 있다.

□ 메트로 마닐라 소재 가 볼만한 식당

- 한국 식당(마카티 소재)
 - 가야 (KAYA): 895-0404
 - 한국관 (KOREA GARDEN RESTAURANT): 895-5443
 - 마산가든 (MASAN GARDEN): 896-9395, 896-5094
 - 부마(해산물): 897-1011
 - 동원가든(한식): 898-3558
- 일식(마카티 소재)
 - Furusato: 523-0476
 - Inagiku: 813-8888(local: 7842) (마카티 상그릴라 호텔 내)
 - Tsukiji: 843-4285
- 중국식
 - Shang Palace: 813-8888(마카티 상그릴라 호텔 내)
 - Tin Hau: 750-8888(만다린 호텔 내)
 - Dragon Gate: 404-2853(파사이 소재)
- 필리핀식
 - IHAW-IHAW(Singing Cooks & Waiters): 832-5579
 - Gery's Grill: 897-9862, 9698(마카티 소재) (저렴함)
 - Harbor View: 524-1532(마닐라 베이 소재) (해산물)
- 스페인식(마카티 소재)
 - Via Mare (seafood specialty restaurant): 815-1918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 기간

서구의 합리주의와 동양의 인정주의가 혼재해 있으나 전반적으로 후진국 색채가 많아 선진국 취향에 익숙한 경우 불편한 경우가 많다.

현지인들의 느긋한 성격 때문인지 관공서의 일처리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일례로 정부 공사에 들어가는 제품을 소개하는 자료를 공문과 함께 발송해 본 바, 내부 검토를 거쳐 회신이 돌아 오는 데 거의 두 달이 소요된 일도 있다.

어떤 통관 대행업자는 한 건의 물품 수입을 위해 68명의 담당자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다소간의 비공식적인 부대 비용이 발생 한다고 한다. 현지 투자업체 일부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된 일도 없다는 식으로 관공서의 업무 처리를 혹평하고 있는데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단계별 사례금 지급이 거의 관례화되어 있다고 한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 사항

외국인에 대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필리핀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나 발언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인들을 비하하는 행동을 한 일들이 현지 언론에 자주 보도된 바 현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정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한국인이 공항 입국 시 이민관 직원과 시비를 벌여 강제 출국된 사례도 있으며, 그것을 지켜보던 한국인 관광객이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시비를 벌인 사람과 일행이 아닌데도 강제 출국 당한 사례가 있는 바, 현지인들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도록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자. 공휴일

□ 2009년도 공휴일

- 1/1 (목) New Year's Day (신정)
- 4/6 (월) Araw ng Kagitingan
- 4/9 (목) Maundy Thursday(성 목요일)
- 4/10(금) Good Friday(성 금요일)
- 5/1 (금) Labor Day(노동절)
- 6/12(금) Independence Day(독립 기념일)
- 8/21(금) Ninoy Aquino Day(아키노 추모일)
- 8/31(월) National Heroes' Day(영웅의 날)
- 11/1(일) All Saints Day(만성절)
- 11/2(월) All Soul's Day
- 11/30(월) Bonifacio Day(보니파시오 추모일)
- 12/24(목) 크리스마스 이브
- 12/25(금) 크리스마스
- 12/30(수) Rizal Day(리잘 추모일)
- 12/31(목) New Year's Eve

필리핀인들의 휴가철인 부활절 전후 기간, 크리스마스 휴가철인 12~1월 초에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고위층들이 휴가를 실시 중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어렵다.

월요일은 각 기업들의 회의가 많아 바쁜 데다 주말을 지나면서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며, 금요일은 업무 정리와 교통 체증 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담 일자는 될 수 있으면 월요일과 금요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이 있는 경우 특별 공휴일로 선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시 위의 표를 참조로 하며, 사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임박하여 공휴일 변경을 선포하므로 최소 일주일 전에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개 3~4일 전에 변경 사항을 발표한다. 따라서 사전에 출장을 계획할 때는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주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시 유의 사항

1) 여행 준비

의복은 한국의 여름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쇼핑몰, 호텔, 극장 등 건물 내부에서는 냉방 때문에 추울 수 있으므로 겉옷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면담 시에는 양복을 입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복장상의 유의 사항은 없다.

진통제, 소화제 등 기초 응급 약품은 휴대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약국이 문을 일찍 닫고 기초 의약품 외 항생제 등은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 규격은 220V, 60HZ로 한국 가전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플러그 모양이 다르니 이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TRAVELER'S JACK'을 사서 연결하면 된다.

2) 여행 여건

□ 치안

과거에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특히 마카티 시내는 치안이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들어 강도·납치 사건이 매우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의 대중 교통인 지프니에서도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는 강도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낮보다 특히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 것이 좋고 과다한 현금 보유, 귀중품이나 보석 소지 및 화려한 옷차림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인에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현지인들이 흥기(총기 등)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현지인과의 시비를 피하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아름다운 여인이나 임산부 등이 길을 묻는 등 접근하여 관심을 끈 후 일행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내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사업가나 회사원으로 위장한 채 말을 걸어(한국어 사용) 유인한 후 강력한 수면제가 든 음료 등을 권하여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으면 돈을 빼앗는 사례가 자주 있는 바, '현지인이건 한국인이건 낯선 이의 친절한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환영객이 나오기로 미리 약속된 경우가 아닌데 누군가 마중을 나와 있다면 이들을 따라가지 말고 공항 택시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내에서 환전소를 이용하게 되면 표적이 되기 쉬우니 환전소를 이용하기보다 환율이 약간 불리하더라도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 특히 달러화를 많이 소지하고 있음을 주위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외국인 납치가 빈번한 남부의 민다나오 섬 근처의 회교 자치 구역은 특히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민다나오섬 전역, 술라우(Sulau), 바실란(Basilan) 및 팔라완(Palawan)

의 Puerto Princesa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여행 경고 지역'으로 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므로 이 지역 여행 필요 시 대사관에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언성을 높이는 등 현지인을 자극하는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현지인과의 마찰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팁

호텔 내 식당에는 10%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식사 비용이 청구되므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20~100 페소 정도를 주기도 한다. 호텔 외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20페소 정도의 팁을 주면 된다. 공항이나 호텔 포터는 포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20~30페소 정도의 팁이 적당하다. 호텔 객실에는 매일 20~30페소 정도 팁을 주는 것이 좋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알아두면 유용한 비상 연락처

- 화재 신고: 911, 16016
- 응급 환자(앰불런스 호출): 117
- 한국 병원: 02)303-6700
- 전화 고장 신고: 173
- PLDT 전화번호 안내: 187
- 경찰 구조 요청: 166
- 대사관 긴급 전화(사건사고 발생 신고): 0917-817-5703

2) 의료 기관

- Capitol Medical Center: 02)372-3825
- Our Lady of Lourdes Hospital: 02)716-3901
- Makati Medical Center: 02)888-8999
- Manila Doctor's Hospital: 02)524-3011
- Medical City General Hospital: 02)635-6789
- Phil. Heart Center for Asia: 02)925-2401
- St.Luke's Medical Center: 02)723-0301

3) 현지 관공서

-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02)524-7011/53
-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 02)928-7031/39
- DEPARTMENT OF AGRICULTURE (DA): 02)928-8741/65
- DEPT.OF BUDGET AND MANAGEMENT (DBM): 02)735-4847,4926
- DEPT.OF EDUCATION,CULTURE & SPORTS (DECS): 02)632-1361 to 70
- DEPARTMENT OF ENERGY (DOE): 02)840-1401 to 21
- DEPT. OF ENVIROM'T & NATURAL RESOUR'S (DENR): 02)929-6633 to 35
- DEPARTMENT OF FINANCE (DOF): 02)524-7011 to 53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02)834-4000 / 834-3333
- DEPARTMENT OF HEALTH(DOH): 02)743-8301/23
- DEPT. OF INTERIOR & LOCAL GOV'T.(DILG): 02)925-0320/23

- DEPARTMENT OF JUSTICE (DOJ): 02)523-8481/98
- DEPARTMENT OF LABOR & EMPLOYMENT (DOLE): 02)527-2116 / 527-2121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02)911-6001/31
- DEP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02)304-3000 / 304-3280
-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 (DOST): 02)837-2071/82
- DEPT. OF SOCIAL WELFARE & DEVT. (DSWD): 02)931-8101/7
- DEPARTMENT OF TOURISM (DOT): 02)523-8411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DTI): 02)890-4901 to 05
- BOARD OF INVESTMENTS (BOI): 02)890-9332
- DEPT. OF TRANSPORTATION & COMM.(DOTC): 02)727-7960~79
- NATIONAL ECONOMIC DEVT. AUTHORITY (NEDA): 02)631-0945

4) 필리핀 주요 은행

- Allied Banking Corp.: 02)816-3311
- Asian Development Bank (ADB): 02)636-8008
- Banco De Oro Universal Bank: 02)636-6060
- China Banking Corporation: 02)242-5601
-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02)811-5407
- Development Bank of the Phils.: 02)818-9511
- Far East Bank & Trust Co.: 02)845-9888
- ING Bank N.V.: 02)840-8888
-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02)522-0000 / 551-2200
- Metropolitan Bank & Trust Co.: 02)898-8000
- Phil. Bank of Communications: 02)637-1717
- PCI/Equitable Banking Corp.: 02)840-7000
- Philippine National Bank: 02)891-6040
- Prudential Bank – Under BPI: 02)889-2479
-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02)894-9000
- Security Bank Corporation: 02)867-6788
- Union Bank of the Phils.: 02)830-2361
- United Coconut Planters Bank: 02)811-9000

5) 외국계 은행

- 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Corp.: 02)818-8117
- Bank of America NT & SA: 02)815-5000
- China Trust (Phils) Commercial Bank: 02)848-6818
- Citibank: 02)995-9999
- Dao Heng Bank: 02)812-7054
- Deutsche Bank AG: 02)894-6900
- HK & Shanghai Banking Corp.: 02)830-5300 / 878-7878
-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02)811-5683
- ING Bank: 02)840-8888
- Korea Exchange Bank(한국외환은행): 02)848-1988
- Standard Chartered Bank: 02)886-7888
- Orion Bank (동양은행): 02)845-3817,3838

6) 경제단체

- Confederation of Philippine Exporters: 02)833-2531 to 34 (마닐라) 032)254-4333(세부)
- Employers 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02)816-3813
- 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02)722-3409
- Makati Business Club: 02)751-1137, 8
-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02)844-3290, 3250
- Federation of Filipino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FFCCI): 02)242-6289

7) 한국 기관

- 대사관: 정무, 경제, 공보
 - ADD: 10TH FL.,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MAKATI CITY
 - TEL: 632)811-6139,6145/6, FAX: 632)811-6148
- 대사관: 영사과
 - ADD: 18TH FL.,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MAKATI
 - TEL: 632)811-8260/2, FAX: 632)811-8258/9
- 마닐라 KBC(Korea Trade Center, Manila) (KOTRA)
 - ADD: UNIT 1002, 10/F., AYALA LIFE-FGU CENTER, 6811 AYALA AVE., MAKATI
 - TEL: 632)893-1183, 3244, FAX: 632)817-3369
- 한인회
 - ADD: 1104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MAKATI
 - TEL: 632)887-4967, 2422, FAX: 886-7997
- 한국외환은행
 - ADD: 33TH FL., CITIBANK TOWER 8741 PASEO DE ROXAS, MAKATI
 - TEL: 632)848-1988, FAX: 632)818-0074,819-5377
- 동양은행
 - ADD: GROUND FL., CHATHAM HOUSE 116, HERRERA ST., SALCEDO, MAKATI
 - TEL: 632)845-3838, 845-3822/30, FAX: 632)845-3840/42
- 대한 항공
 - ADD: GROUND FL., LPL PLAZA, 128 ALFARO ST., SALCEDO VILLAGE, MAKATI
 - TEL: 632)815-9265/6, FAX: 632)815-0737
- 아시아나 항공
 - ADD: 6/F., SALCEDO TOWERS, 169 H.V. DELA COSTA STREET, SALCEDO, MAKATI
 - TEL: 63-2)892-5688, FAX: 63-2)892-5701

8) 외국 항공사

- 필리핀 항공(국제선): 855-8888, 831-8370
- 에어 필리핀(국내선): 851-5258
- 타이 항공: 812-4744

- 노스웨스트: 841-8800
- 세부퍼시픽: 702-0888
- 퍼시픽에어: 853-8394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주요 쇼핑 센터

명 칭	위 치
Alabang Town Center	Alabang-Zapote Road, Alabang, Muntinlupa City, Metro Manila
AliMall	P. Tuazon Boulevard,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Ayala Center Cebu	Archbishop Reyes Street,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EDSA Central	EDSA cor. Shaw Boulevard,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Fairmart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Farmer's Plaza	EDSA,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Galleria	EDSA corner Ortigas Avenue, Quezon City
Gateway	Aurora Boulevard,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Glorietta	Ayala Center, Ayala Avenue corner Pasay Road, Makati Avenue and EDSA, Makati City, Metro Manila
Greenbelt	Ayala Center, Paseo de Roxas corner Legaspi Street, Ayala Center, Makati City, Metro Manila
Greenhills	Connecticut Street, San Juan, Metro Manila
Jeepney Central	EDSA Service Road,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Landmark	Ayala Center, Makati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Market! Market!	Carlos P. Garcia Avenue (also known as C-5) cor. 26th Stree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Metro Manila
Megacenter	Padre Jose Burgos Street, Cabanatuan City, Nueva Ecija
Metro Point	Pasay Rotonda, EDSA cor. Taft Avenue, Pasay City, Metro Manila
Park Square	Ayala Center, Hotel Drive cor. EDSA, Makati City, Metro Manila
Pavilion Mall	National Road, San Antonio, Biñan, Laguna
Plaza Fair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Robinsons Cagayan de Oro	Limketkai Complex, Lapasan, Cagayan De Oro City
Robinsons Metro East- Pasig	Marcos Highway, Brgy. Dela Paz, Pasig City
Robinsons Place - Bacolod	Lacson Street, Mandalagan, Bacolod City
Robinsons Place - Cainta	Ortigas Avenue Extension, Junction, Cainta, Rizal
Robinsons Place - Cebu.	Fuente Osmeña, Bo. Capitol, Cebu City
Robinsons Place - Dasmariñas.	Aguinaldo Hi-Way Corner Governor's Drive Barangay Sampaloc 1, Dasmariñas, Cavite
Robinsons Place - Iloilo	Quezon-Ledesma Street, Rojas Village, Iloilo City
Robinsons Place - Imus	Aguinaldo Highway, Tanzang Luma V, Imus, Cavite
Robinsons Place - Lipa	Mataas Na Lupa, Lipa City, Batangas
Robinsons Place - Manila	M. Adriatico Street, Ermita, Manila
Robinsons Place - Novaliches	Quirino Highway, Novaliches, Quezon City
Robinsons Place - Pioneer	EDSA Corner Pioneer Road, Mandaluyong City
Robinsons Place - Santa Rosa.	Old Nat'l Hi-way, Brgy. Tagapo, Sta. Rosa City, Laguna
Robinsons Place - Tagaytay	Tagaytay City, Cavite
Robinsons Place Angeles	McArthur Hi-way,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Robinsons Place Davao (soon to rise)	Davao City, Davao del Sur
Robinsons Star Mills - Pampanga	San Jose, San Fernando, Pampanga

Robinsons Town Mall – Los Baños, Laguna	Lopez Avenue, Batong Malaki, Los Baños, Laguna
Shaw Boulevard MRT Station Mall	EDSA,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SM Baliwag	Baliwag, Bulacan
SM Calamba	Calamba City, Laguna
SM City Bacolod	Rizal Avenue, Reclamation Area, Bacolod City, Negros Occidental
SM City Bacoor	General Emilio Aguinaldo Highway cor. Tirona Highway, Brgy. Habay, Bacoor, Cavite
SM City Baguio	Luneta Hill, Upper Session Road corner Governor Pack Road, Baguio City, Benguet
SM City Baliuag	Maharlika Highway, Baliuag, Bulacan
SM City Batangas	Brgy. Pallocan Kanluran, Batangas City, Batangas
SM City Bicutan	Doña Soledad Avenue corner West Service Road (beside Exit 14, Bicutan exit), Brgy. Don Bosco, Bicutan,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SM City Cagayan de Oro	Materson Avenue cor Gran Via St., Brgy. Carmen, Cagayan de Oro, Misamis Oriental
SM City Cebu	North Reclamation Area, Cebu City, Cebu
SM City Clark	M.A. Roxas Avenue, Clark Special Economic Zone, Angeles City, Pampanga
SM City Dasmariñas	Governor's Drive, Brgy. Sampaloc 1, Dasmariñas, Cavite
SM City Davao	Quimpo Boulevard corner Tulip Drive, Ecoland Subdivision, Brgy. Matina, Davao City, Davao del Sur
SM City Fairview	Quirino Avenue cor. Regalado Ave., Greater Lagro, Quezon City, Metro Manila
SM City Iloilo–Mandurriao	Benigno S. Aquino Jr. Avenue, Jaro West Diversion Road, Mandurriao, Iloilo City, Iloilo
SM City Lipa	Laurel Highway, Lipa City, Batangas
SM City Lucena	Maharlika Highway corner Dalahican Road, Brgy. Ibabang Dupay, Lucena City, Quezon
SM City Manila	Concepcion corner Arroceros and San Marcelino Streets, Ermita, Manila
SM City Marikina	Marcos Highway, Marikina City, Metro Manila
SM City Marilao	MacArthur Highway, Brgy. Lias, Marilao, Bulacan
SM City Naga	Central Business District II Triangulo, Naga City, Camarines Sur
SM City North EDSA	North Avenue cor. EDSA, Quezon City, Metro Manila
SM City Pampanga	Olongapo–Gapan Road corner North Luzon Expressway (Exit 65, San Fernando Exit), Brgy. San Jose, San Fernando City, Pampanga
SM City San Lazaro	Felix Huertas Street corner Arsenio H. Lacson Extension, Santa Cruz, Manila
SM City Sta. Mesa	Ramon Magsaysay Boulevard cor. Araneta Ave., Quezon City, Metro Manila
SM City Sta. Rosa	National Highway, Barrio Tagapo, Santa Rosa City, Laguna
SM City Sucat	Dr. A. Santos Avenue, Brgy. San Dionisio,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SM City Taytay	Manila East Road, Taytay, Rizal
SM Dagupan	Dagupan City, Pangasinan
SM Laoag	Laoag City, Ilocos Norte
SM Mall of Asia	SM Central Business Park, Bay City, Pasay City, Metro Manila
SM Megamall	EDSA cor. Julia Vargas Avenue, Ortigas Center,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SM Meycauayan	MacArthur Highway, Meycauayan, Bulacan
SM San Pablo	San Pablo City, Laguna
SM Southmall	Alabang–Zapote Road, Las Piñas City, Metro Manila

SM Supercenter Molino	Molino Road, Molino 4, Bacoar, Cavite
SM Supercenter Muntinlupa	Brgy. Tunasan, Muntinlupa City, Metro Manila
SM Supercenter Pasig	E. Rodriguez, Sr. Ave. (C-5), Frontera Verde, Ortigas Center, Pasig City
SM Supercenter Valenzuela	McArthur Highway, Brgy. Karuhatan, Valenzuela City, Metro Manila
SM Supercenter Vito Cruz	Pablo Ocampo Sr. Road, Makati City, Metro Manila
SM Tagaytay	Tagaytay City, Cavite
SM Tarlac	MacArthur Highway, Brgy. San Roque, Tarlac City, Tarlac
SM Urdaneta	MacArthur Highway, Urdaneta City, Pangasinan
TriNoma¹	North Avenue cor. EDSA, Quezon City, Metro Manila

2) 특산물

- 목조품: 나라, 아카시아, 카마곤(흑단)으로 제작된 토속 인형 등이 있다.
- 조개 세공: 조개로 만든 접시, 귀금속 보관 상자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 식물 제품: 파인애플 섬유, 바나나 섬유, 마와 목면 혼방의 손수건, 테이블보, 핸드백 등
- 진주: 흰색, 살색, 흑색, 금색의 천연 및 인공 진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파. 관광 명소

1) 시내 관광 명소

- 리잘공원(Rizal Park)
 - 마닐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인 호세리잘(Jose Rizal)이 1896년 12월 30일 처형된 장소를 기리는 비석도 세워져 있다. 주말에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산책 장소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 말라카냥 궁(Malacanang Palace)
 - 필리핀 대통령의 관저로서 일부 공간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이 있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다.
- 아얄라 거리(Ayala Avenue)
 - 상업, 금융 도시인 마카티 시티(Makati City)의 중심도로이며 필리핀의 Wall Street라 할 정도로 은행, 보험 등 금융 회사들이 들어서 있다.
- 차이나타운(China Town)
 - 중국계 필리핀인들의 집중 주거 지역으로서 각종 약품 판매점, 귀금속점, 중국 식당, 중국 제과점들이 많다.

2) 메트로 마닐라 외의 관광 명소

- 이푸가오 라이스 테라스(Ifugao Rice Terraces)
 - 산을 깎아 계단식으로 만든 쌀 경작지(논)로서 루손섬 북부인 Mountain주에 위치.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보라카이(Boracay)
 - 필리핀 중부 파나이 섬 북서단에 있는 작은 섬으로 세계 3대 해변으로 선정될 정도로 하얀 모래, 수정 같은 바닷물을 자랑한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 바기오(Baguiο)
 - 필리핀 루손섬 북쪽에 있으며 필리핀의 여름 수도로 애기될 정도로 날씨가 선선하여 특히 여름에는 피서객, 신혼 부부들이 많이 찾는 관광 도시이다. 비행기를 타면 40분 정도, 자동 차로는 6~8시간 소요된다.
- 세부(Cebu)
 -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남국의 여왕(Queen City of the South)으로 불리고 있으며 비사야 제도의 중심지로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 초콜릿 힐(Chocolate Hills)
 - 비사야스 지방의 보홀섬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 40미터 정도의 원추형 구릉이 1,000여 개 정도가 잇따라 있어 불가사의한 풍경이 된다. 우기에는 풀로 덮여 있어 녹색을 띄지만 건기가 되면 초콜릿 색으로 변한다 하여 '초콜릿 힐'로 불린다. 비행기로 이동해야 한다.
- 팔라완 엘니도(EI Nido)
 - 팔라완 지방의 엘니도 섬은 때문지 않은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매우 사랑 받는 곳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신혼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한다. 미니락, 라겐, 아만폴로 등의 리조트가 유명하며,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모든 식사와 서비스 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팁을 받지 않고 친절하여 방문객은 누구나 만족해 하고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전시회명	도시	개최기간
필리핀 시스템 통합전	파사이	2009/08/21~2009/08/23
필리핀 정보통신 박람회	파사이	2009/08/21~2009/08/23
필리핀 음반 영상기술 박람회	파사이	2009/08/21~2009/08/22
국제 그래픽 디자인 박람회	파사이	2009/08/21~2009/08/23
필리핀 판촉물 전시회	파사이	2009/08/21~2009/08/23
필리핀 금속 월드 및 기계 박람회	마닐라	2009/08/27~2009/08/30
국제 식품업 시스템 엑스포	마닐라	2009/09/02~2009/09/05
식품 음료전	마닐라	2009/09/02~2009/09/05
아시아 식품가공 박람회	마닐라	2009/09/02~2009/09/05
푸드 서비스 아시아 2009	마닐라	2009/09/02~2009/09/05
국제 전기전자 기술 박람회	마닐라	2009/09/16~2009/09/18
국제 보건 박람회	파사이	2009/10/02~2009/10/04
환경 테크놀로지 제품 박람회	파사이	2009/10/08~2009/10/11
국제 전기 반도체 박람회	파사이	2009/10/08~2009/10/11
국제 그래픽 디자인 박람회	파사이	2009/10/08~2009/10/11
가구 제작용 기계 전시회	파사이	2009/10/08~2009/10/11
필리핀 금속가공 공구 박람회	파사이	2009/10/08~2009/10/11
2009 포장 및 프린트, 플라스틱 박람회	파사이	2009/10/08~2009/10/11
필리핀 건강상품 전시회	파사이	2009/10/15~2009/10/18
마닐라 추계 선물용품 박람회	파사이	2009/10/15~2009/10/18
국제 냉난방 전시회	파사이	2009/11/12~2009/11/15
국제 건축장비 박람회	파사이	2009/11/12~2009/11/15
필리핀 가구 페스티벌	마닐라	2009/11/14~2009/11/22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구분	기관명	웹사이트
정부/공공기관	Nat'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NEDA)	http://www.neda.gov.ph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	http://www.dti.gov.ph
	Board of Investments (BOI)	http://www.boi.gov.ph
	Bangko Sentral ng Pilipinas(BSP)	http://www.bsp.gov.ph
	Nat'l Food Authority(NFA)	http://www.nfa.gov.ph
	Nat'l Computer Center	http://www.ncc.gov.ph
상공회의소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PCCI)	http://www.philcham.com
경제통계	Nat'l Statistics Office	http://www.census.gov.ph
	Nat'l Statistics Coordination Board	http://www.nscb.gov.ph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	http://www.dti.gov.ph
언론기관	Business World	http://www.bworld.com.ph
	Philippine Daily Inquirer	http://www.inq7.net
	Manila Bulletin	http://www.mb.com.ph
	Philippine Star	http://www.philstar.com
정보검색	YEHEY	http://www.yehey.com